



三倫行實

9
2468



仁
2468

二倫行實圖序

天生蒸民有物有則該而目之為五倫撮而指之為三綱皆根於人心之所固有天理之所當然其曰倫曰綱非有二也

本朝三綱行實之書既廣布中外人人皆知忠臣孝子烈婦之行為可仰也莫不感激奮礪以興起其善心獨於長幼朋友二倫未之見焉今慶尚道觀察使金公諱安國嘗在政院八侍

經幄請撰二倫行實添續三綱以備觀感

上可之下禮曹令設局撰進

命未及行而公出按于南首屬前司澤院正曹

伸撰集歷代諸賢處長初交朋友其行跡

可為師法者得若干人於兄弟圖附宗族

於朋友圖附師生記事圖皆其詳悉做三

綱行實列其善焉

之為之

于寧

以

二

以敬其長則風俗其不厚乎人人取其友
以輔其德則善人其不衆乎風俗厚則上
下安善人衆則治道進然則是書自當與
三綱行實並行於世為

聖朝教化之基本豈不美歟恭惟我

主上殿下聖智天縱日與賢士大夫討論經史

講劄治道莫不以教化為致治之先務公

能上體

聖意賦政之初汲汲焉編輯是書刊行州里以

扶植彞倫為化民之本而躬率礪師生以

考其德業旁搜孝行貞烈之卓異者聞于
上而旌表之又令慶州安東等五邑刊書籍之
有關於治道者凡十一其曰童蒙須知正
蒙養也曰口訣小學培根本也曰三綱二
倫行實明人倫也曰性理大全崇正學也
曰諺解正俗諺解呂氏鄉約正鄉俗也曰
諺解農書蠶書敦本業也曰諺解瘡疹方
辟瘟方救天札也此雖未足以盡公之善
而然因此可以見公之學問抱負大有以
異於人也噫世之觀是書者其皆以公之

心為心勉之哉正德戊寅三月日晉川姜
渾書于晉之東臯村舍

一倫行實圖目錄

兄弟

倪壽同死

卜式分畜

王琳救弟

許武自織

鄭均諫兄

趙孝慈烹

繆彤有過

李充逐婦

姜肱同被

王覽爭醢

庾袞守病

王密易身
蔡廓咨事
棘薩爭死
楊氏義讓
達之贖身
盧操策驢
光進反籍
杜行待兄
張存布錦
彥霄折籍
德珪死獄
道卿引頸
郭全分跡

思達義感

宗族

君良斥妻
公藝書忍
陳氏羣食
仲淹義莊
陸氏義居
文嗣十世
元伯同爨
朋友
范張死友
樓護養呂
張裔恤孤

道琮尋尸

吳郭相報

李勉還金

徐晦不負

查道傾橐

韓李更僕

純仁麥舟

侯可求醫

師

云敬自効

桓榮奔喪

牽招斂殯

揚時立雪

[Empty table with vertical lines]

眞이라 공조수 노선공이란
 남금의아리나 때그금비
 가문어의게난아어오공조
 삭이와호어의게난형이라
 그어미삭이와씨야매조
 들주기고취를세오려야
 사구므로야매조와비타
 가다가오레드리러주그러
 가거늘취말리지못야조
 차그비물라가나못주그러
 라조취나라히매조를보배
 고도취야갈해가매조의
 괴를가거도보고주그러
 배취가거말라야늘배저
 널오뒤아비명을타면조
 석의되야나라호배취조
 차가러나그어미말리지못
 호야정게야늘오려알서



二倫行實兄弟圖
 及壽同死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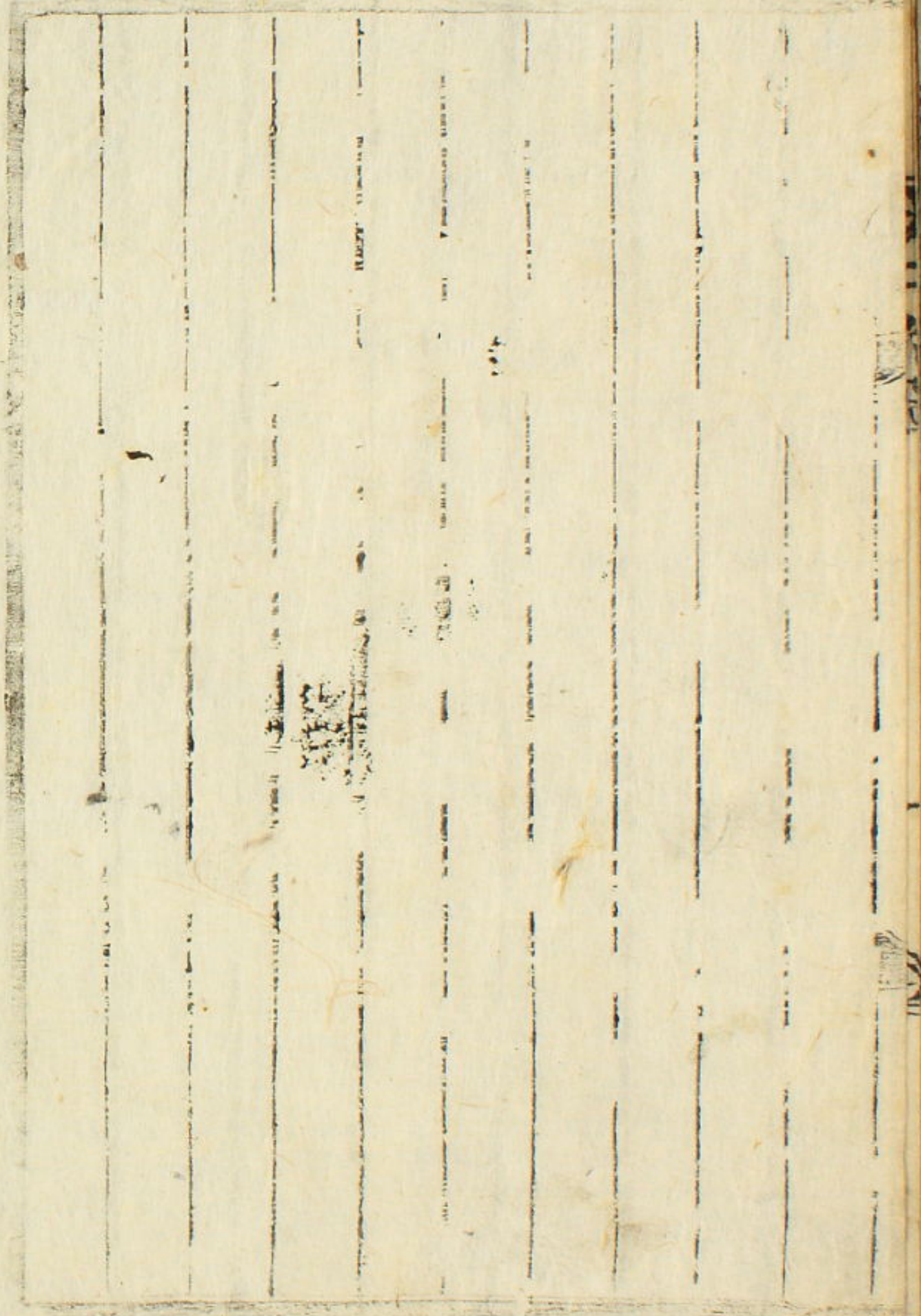
이말라후타나위任不외
의를아사알위세고가거
도적의리저라더거주기나
라대저이취가보고제모기
주근주를늘허을고주거물
시러모라와거도손주주그
니라

衛公子壽者宣公之子太子伋之異母弟公子朔之同母
兄也其母與朔謀欲殺伋而立壽使人與伋乘舟於河中
將沉而殺之壽知不能止因與之同舟舟人不得殺又使
伋之齊將使盜見載旌要而殺之壽止伋伋曰棄父之命
非子道也不可壽又與之偕行其母不能止乃戒之曰壽
無為前也壽又竊伋旌以先行盜見而殺之伋至庸壽代
已之死涕泣悲哀載其屍還至境而自殺

詩泛泛河舟同濟日迢迢齊路竊旌時自逢
急一去那堪見兩屍 人倫遭變力難禁
死悲懷兩不任為馮新編垂萬代凜然天下弟兄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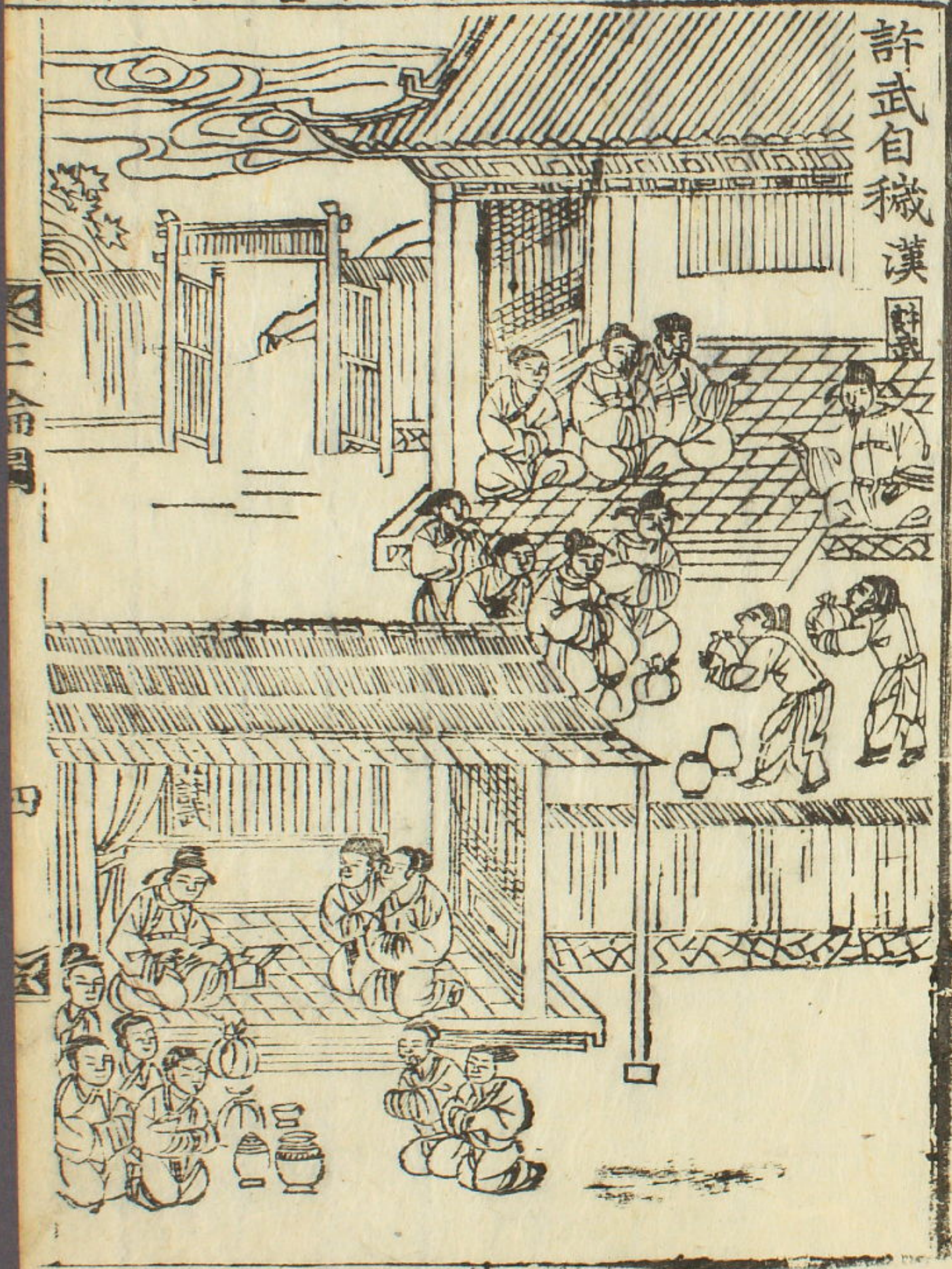
왕림이 사하여 라오 인 지
 리어 즈리 위 형이 다 호 터
 도 망 구 고 다 모 왕 림 의 행 회
 옷 분 요 락 히 여 처 우 루 물 그
 처 더 아 니 터 니 아 이 나 갖 파
 가 적 미 란 도 죽 을 맛 나 자 피
 여 님 왕 림 이 제 리 여 도 죽 의
 개 가 비 로 되 버 몬 적 죽 기 지
 라 호 매 도 죽 기 여 옛 세 너 겨
 노 하 보 내 니 라

王琳救弟漢



허무튼 회원이 천가야
 비슬하이니 허위제두아이
 비슬하야이니 허위제두아이
 흥이오자야날오더제
 노화집나살기저라호고제
 관고제기제화호호제
 도호반과도호종을회제
 카가지고두아이란사오나
 온가슬주니호고을사르다
 다허무튼담심타호고두아
 오스양하이어저파하더니
 글로하야두아이더천하
 이나라그후에허위이를들
 모도고을며늘오더제사오
 나오더며늘고두아이나
 허조라도록며늘몰할서너
 세고노화니기공을들더
 니이제비가귀안세관불은

許武自穢漢



王琳字巨尉年十餘歲喪父母因遭大亂百姓奔逃惟琳
 兄弟獨守塚廬號泣不絕弟赤子出遇赤眉為賊所捕琳自
 縛詣賊請先季死賊矜而放與之
 四方多難劇紛如兄弟相愛即天災急難誰知有
 死豺狼安得不矜且弟兄相愛即天災急難誰知有
 此兒要識至誠無不感請看免醜遣歸時

다시 태로 썬 세 버리 나더으
 니라 고고 두 아 아 들 주 고
 호 고 두 저 아 니 호 대 모 다
 일 곤 더 라

許武建武中會稽太守第五倫舉為孝廉武以二弟晏普
 未顯欲令成名乃謂之曰禮有分異之義家有別居之道
 於是共割財產以為三分武自取肥田廣宅奴婢強者二
 弟所得並皆劣少鄉人皆鄙武貧而稱弟能讓由是晏等
 俱得選舉武乃會宗族泣曰吾為兄不肖盜竊聲位二弟
 年長未霑榮祿所以求得分財自取大譏今理產所增三
 倍於前悉推與二弟一無所留於是郡中翕然稱之
 廉孝從前舉豈誣貽財甘作一貪夫心期二弟名成
 後三倍賞財盡付渠 弟顯自從兄穢日兄貪還釋弟
 榮時尋常友愛還誇俗隱德無嫌世所譏

鄭均이 노임 성 사 례 이 라 형
 이 고 윤 원 이 되 아 처 노 리 존
 거 슬 즐 거 밧 더 니 아 이 조 조
 간 호 야 말 라 호 야 포 들 더 아
 니 게 노 명 이 나 가 처 노 리
 일 호 고 식 바 다 호 처 나 마 니
 만 히 어 더 다 가 형 을 주 고 늘
 오 더 이 오 다 재 든 노 어 리 들
 거 시 어 니 화 원 되 샷 다 가 장
 리 저 들 니 부 면 죽 도 루 노 르
 리 라 호 대 형 이 그 말 을 들 노
 호 야 형 녀 호 관 원 이 되 니 라

鄭均諫兄漢



鄭均任城人兄為縣吏頗受禮遺均數諫止不聽即脫身為傭歲餘得錢帛歸以與兄曰物盡可復得為吏坐贓終身捐棄兄感其言遂為廉潔

詩取物傷廉恐累身愛兄誠意出天真已知切諫終無入甘自為傭受苦辛 傭得錢歸遺我兄包首代此足營生坐贓一語開心病貪污終能變潔清

趙孝就烹漢



요회시절이 어찌운것을
 앓나사루미서로자바먹터
 너아이드적의게잡외술모
 려저늘요회늘고제뒤여도
 적의게가닐오더내아이오
 해병상이어위나날안술지
 가못하나라호해도적이늘
 라다노하보내며보오더가
 피시할미시어터오라호해
 도전말엇다가못하야다시
 도전외게기너고개술겨
 지라호해모다괴이히너겨
 주기지아나하나라
 남금이드르치고블니변슬
 이시니라

북을이 권머서아비입고형
 데네히호제과디사티니과
 가러집이든후에모도거집
 들리노화다가사적고고조
 조사호음호노말리잇거를
 용이장애드라하야문달
 고제저를타며닐오디무용
 아비몸앗가성인의일비호
 모장호물술을고리러호디
 잇디그집도정재몬호노나
 호대아호몰히며모도거집
 돌히듯고머리조아사죄하
 야다시화동히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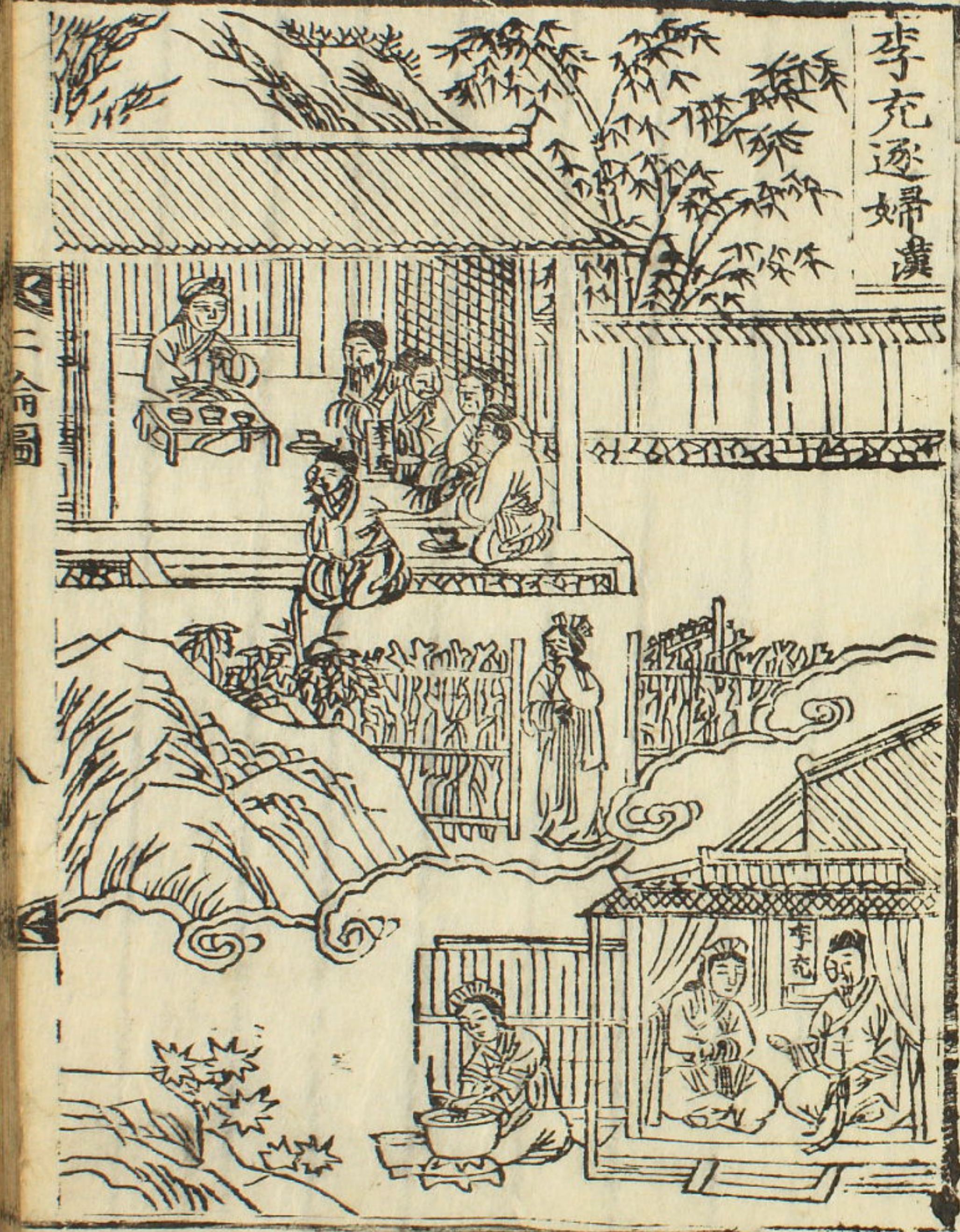
經彫自掘塚



趙孝遭天下亂人相食孝躬禮為賊所得將烹之孝問即
 自縛詣賊曰禮久卧羸疾不如孝肥飽賊大驚並釋之
 謂曰可歸更持米糒來孝求不得復往報賊願就烹眾異
 之遂不害明帝聞其行召拜諫議大夫
 遭時不幸暗傷神人化為豺又食人自縛肥身甘代
 亭野心猶感有天倫 野清何處更求糒垂棠歸來願
 就烹異行能回羣盜腹高名宜徹九天明

니 흉이지 비가 난 하야 허테
 어스시 오밤 불이 루니 부며
 의터니 기집비만 만니 나충
 이드러 날오 뒤가 난히 사도
 미이러 못하 니 편안티 못하
 니 맛티 사라야 하 리로 다호
 매니 흉이거 죽티 할호크술
 비드라 드은 파아 움 돌도
 요호리 라하 고 못기 르니 충
 이모다 안조 알피 하 러어
 게슬오 뒤이 거 집비 사오나
 와나 돌크러 허어 이 와 행테
 스이 를 허나 게 하 니 그 죄노
 버틸기 시이 다하 고 구 종하
 야 무네 나가 라 호미 거 집비
 눈물머기 고 나가 니 라

李充遜婦漢



繆彤少孤兄弟四人皆同財業及各娶妻諸婦遂求分異
 又數有鬪爭之言彤深懷忿歎乃掩戶自搥曰繆彤汝脩
 身謹行學聖人之法將以齊整風俗奈何不能正其家乎
 身及諸婦聞之悉叩頭謝罪遂更為敦睦之行
 詩 早孤諸李與同居娶婦求分罪在予掩戶自搥能感
 彼一家敦睦得如初 同氣相分自責深能令諸婦便
 回心是知友愛由天性踈血相殘毀與禽

강평이 노쇠가 옛사람이라
 두아스 등히 화개강과다
 도하머이던소리나타니
 세스랑하야생비하디불
 자타라과과지집하야도
 르스랑하야맛타가자타
 니하야지식나홀거실서
 르마라방의가너니강평이
 대강과드르헤나맛하가도
 적을만나주거려하거려
 테서로내죽거지라도토아
 강평오닐오귀하이집고어
 버이스랑하고노랑가를
 드러시니내죽고아온살하
 지라하니내강오닐오귀
 이나토안코덕도안하야
 라희호현의사쿠이니형의
 감내죽거지라호대도죽

姜肱同被漢



李充家貧兄弟六人同衣適食妻竊謂充曰今貧居如此
 難以久安願思分異充爲酬之曰當醞酒具會請呼鄉里
 内外充坐中前跪白毋曰此婦無狀而教充離間毋子兄
 身罪合遣斥便呵叱其婦遂令出門婦銜淚而去
 悍妻當日怨家貧不念鴛原骨肉親會合鄉間揮婦
 去割情全愛篤天倫 同衣適食意慙勤長枕當年不
 擬分何物婦人饒間舌一心愈更切箠損

기왕은 관유하고 일오두루
 분이이전사르어어늘우리
 사오나와과개로로외는하
 후고다드리고사니라

姜肱家世名族與二身仲海李江俱以孝行著聞友愛天
 至嘗同被卧及各取妻兄身相戀不能別寢以係嗣當立
 乃適往就室嘗與李江適野遇盜欲殺之兄身爭死肱曰
 身年幼父母所憐愍又未聘娶願自殺身濟身李江言兄
 年德在前家之珍寶國之英俊乞自受戮以代兄命盜載
 刃曰二君賢人吾等不長妄相侵犯乃兩釋之

二身同居共一衾天倫情至友于深蒼皇遇難爭投
 死兩釋終能感賊心 身恭兄友若損簷居寢須臾不
 忍離更有至情難掩處共看爭死冒危時

왕림이시미다로형왕상의
 와마장스랑후타니왕림의
 이이유기왕상이를보채아
 티기른왕림이두어현미근
 제보고문득울고가붓산티
 니일운되야미양어미물말
 니니그어미적기모디로미
 곳츠니라그어미조조못호
 일로왕상이를브리거든왕
 림이조카가하며는못을일
 로왕상의거침도조카가하
 니그어미어려이너져서아니
 궁터라드그어미마나손
 세약플어왕상이를어기려
 처근왕림이알고드라가그
 추물아오면왕상의약플을
 알고가지고주다하니호대

王覽爭醜晉



그이미제가아사업처브리
 니라그후에어미왕자의의식
 음식주어든왕자의의식
 기맛있더니어미제가아들
 들가공야하니라

王覽字玄通與兄祥友愛甚篤母朱氏遇祥無道覽年數
 歲見祥被楚撻輒淳泣抱持至於成童每諫其母其母少
 止凶虐朱屢以非理使祥覽輒與祥俱又虐使祥妻覽妻
 亦趨而共之朱患之乃止朱密使酖祥覽知之徑趨取酒
 祥疑其有毒爭而不與朱遽奪覆之自後朱賜祥饌覽輒
 先嘗朱懼覽致斃遂止

南 嚚母時時虐視兄看兄被撻痛兒情身同室婦代兄
 嫂共服勤勞庶感誠 酖非好酒何宜飲兄穿爭持母
 取翻從此毋食兒輒試周旋母子竟全恩

유공의집의시것병이드려
 두형이죽고버근형이도
 죽기되야병이보야호로
 다어어버어어아호로
 의집나기늘유공이호로
 취나가다아니기날어버
 미형들히구되나라호로
 유공이브스더내형본이
 을취되아니호로다호고
 신히잡드러나지며바미
 사저이니호고팍을모로
 여우르를그쳐다아니터
 서너돌이내병쳐도그츠
 지릿사름도드러오며병
 니도다도허유공이도
 지나니모다볼오디의
 취이사름이여니못호
 를호니처운후에아소
 남기

庾袞守病晉



이제야 모친병도 덜었더니
 고을을 알리라 하더라

庾袞咸寧中大疫二兄俱亡次兄昆復危殆羸氣方熾父
 母諸弟皆出次于外袞獨留不去諸父兄強之乃曰袞性
 不畏病遂親自扶持晝夜不眠其間復撫袞哀臨不輟如
 此十有餘旬疫勢既歇家人乃反昆病得差袞亦無恙父
 老咸曰異哉此子守人所不能守行人所不能行歲寒然
 後知松柏之後凋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當患須看友愛真撫亡扶病極勤辛十旬晝夜終無
 恙癘疫從知不染人 兩兄俱沒次兄危出次人人謹
 避之能守衆人難守處待看松柏歲寒時

왕필이제아오와아불과
 리고관가다가방사이업서
 아오와아불을판두고전
 을회양식빌라맛허가와보
 니아이도적의게후리여가
 고아돌로도행하야수어나
 기거논왕필이그아돌어티
 티불고도적의게가머리조
 아미러블오디인경이다조
 식을스랑권마노오적이하
 은나저아니하야셔아비죽
 거늘내글러내야이관도야
 인누너청권내호이아돌로
 아온맛요아지라호과도적
 들허셔르닐오라아돌로아
 을맛요너마장어저도다하
 고다주어보내니라왕필이
 후애증거늘아이물어공도

王密易序晉



하너어고몬丈用하고심상
슬어스희너브니라

正密嘗與身儁子元直西如涼州路中糧匱密留儁元直
西於途乞丐民間比還儁為賊所掠元直逃密乃將元
直追賊叩頭求哀曰人情自當皆愛其子但此身未生家
君見背孤遺相長以至于今請以元直易儁賊相謂曰以
子易身義之大也於是以身授密而去密後亡儁勺
水不入口者五日雖服喪期年而心喪六載

○道出涼州乞丐歸旋聞阿身賊中圍將兒換身直情
切盜賊無知亦解悲 亡親遺腹只斯人相愛相憐若
一身苟保吾兒棄吾身九泉何以謁吾親

체학이형을형프디아비
리후야접안해크며자근이
를미우러후디니계루토기
슬다형외개드러두구슬디
잇기등맛된사루외개형후
아쁘티라님금외셔나갓기
늘기집미유무후야티몸옷
후야지리호대디답후아유
무호디여몸으슬중거니와
해아리줄사루미제술거시
니게게가빌리니르디알라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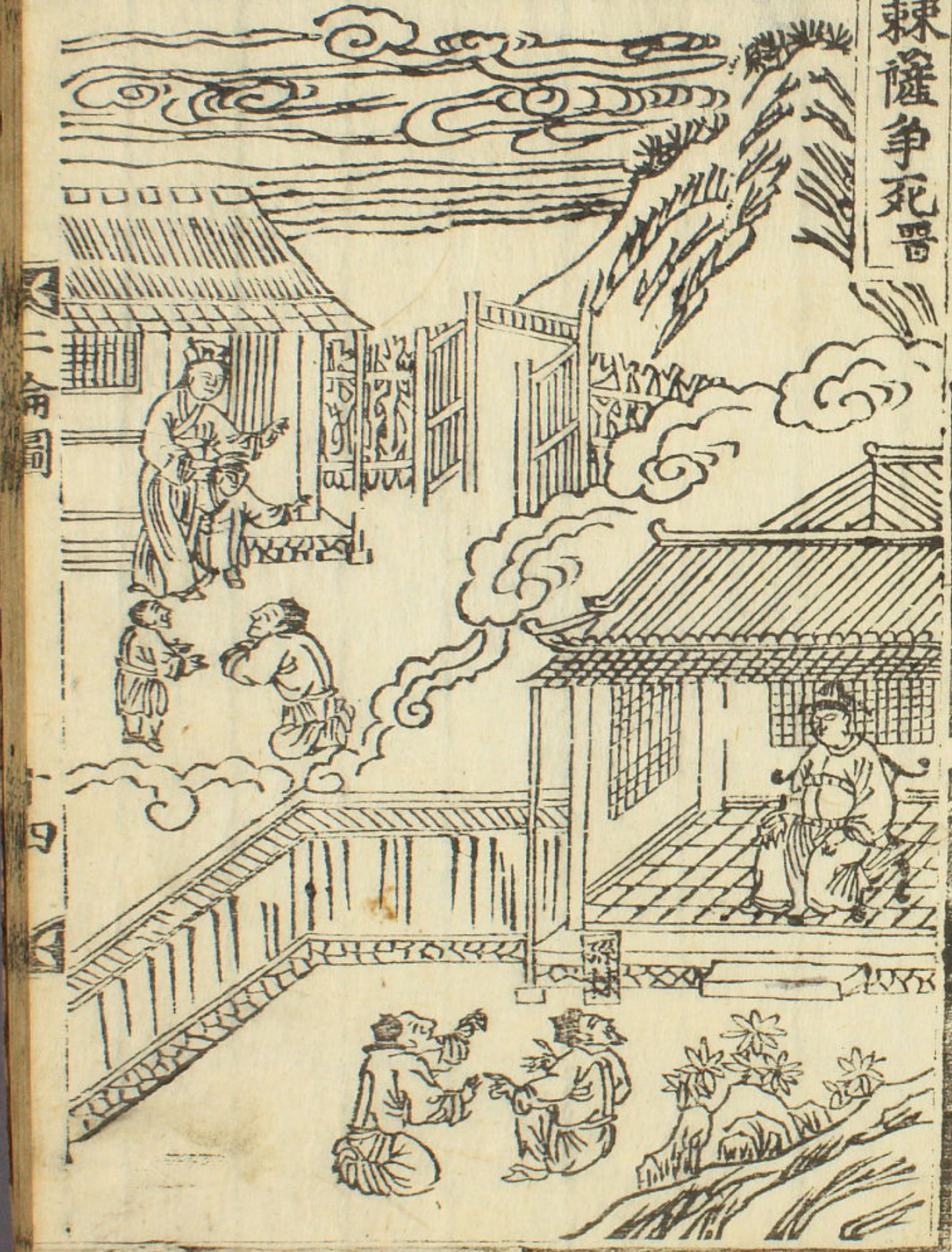
蔡廓諮事



二合圖

손국이 임이 섬기물지극기
 호도하더니 임이 주를 제쳐
 음아 돌을 손국의게 두려서
 라고고장소랑하야하더니
 니그제사공싸군을내려니
 그아이손국의목지가다가
 못밧히가니 죽으밧이별손
 국이와제아수와서르내주
 그러두도더니 손국의게집
 허시도말니이서국의게축
 가야날너보내요제그집
 가져서엇더문아이가되
 들밀료보임이죽을제그밧
 게와제거든제집이여죽
 도업선니그디노두죽
 잇하니주근듯무서시위
 이를엿와와글나라려다노

棘籬爭死



蔡廓奉兄執如父家事大小皆諮而後行公祿賞賜一
 入執有所資須悉就典者請焉從高祖在彭城妻以書
 求夏服廓答曰知復夏服計給事自應相供無容別寄
 奉兄如父敬無違家有尊嚴孰敢私祿賜盡應歸一
 室事無專制必先咨 扈從君王苦未回妻求夏服寄
 書求計給只言存典者稍無私意汚靈臺

후시고그집문의방부터니
라

孫棘事母至孝臨亡以小兒薩屬棘特深有愛時發民為
軍薩代棘行及後軍期應死棘薩爭死妻許氏又遠屬棘
曰君當門戶豈可委罪小即且大家臨終以小即屬君竟
未有妻息君以二兒死復何憾太守張岱表聞詔原之仍
榜其門

詩 兄弟爭死豈要名乃婦猶知棘死輕帝感三人倫懿
為宥全門戶又褒旌 兄念慈親翰子哀身思天顯克
恭我當前斧鉞爭趨赴豈料金雞放赦回

양파아양출이와양진이
외서르삼피이버이조식
스이저터니형미아총이어
돈대형의모다저무도록호
디서안해드러가다아니하
며호도호음식이잇기든못
지아니면역다아니터라대
형스이에중명대위마리외
두고잇다감가쉬고도로와
말하터라양출이나하늘거
저다로터가술취하야오기
말양진이부드러지비드리
고방알피쳐수호중차며안
부들못타라출과진파나히
여슈나마다저상이되슈
디양진이오히여아출나조
문안하거든조식이며아출
아들돌히침아래르러니서

楊氏義讓

後繼



엇더나 양춘이 안노라야니
 양춘이 나가서 쳐 무도록이
 나오거든 양진의 밥을 온 주
 의지 아니 하야 양춘이 오공우
 에야 홍희의 터라 밤이 올피
 양진이 친히 수취물드리며
 모쳐 맛보고 양춘이 머그라
 호후에야 먹더라 호집안하
 남진거집비일회기나 하야
 만권장 돌하 호바베먹고
 사료되스이세잠말리입터
 라

揚播與身椿津並敦義讓昆季相事有如父子昆弟曰則
 聚於廳堂終日相對未曾入內有一美味不集不食廳堂
 間往往悻悻隔障為寢息之所時體休偃還共談笑椿年
 老曾也屢醉歸津扶持還室仍假寢閣前承候安否椿津
 年過六十並登台鼎口津尚旦暮然問子姪羅列階下椿
 不命坐津不敢坐椿每近出或日斜不至津不先飯椿還
 然後共食食則津親授匙箸味皆先嘗椿命食然後食一
 室之內男女百口總服同爨庭無間言

詩 楊家義讓為天倫昆季嚴如父子親一味共分相對
 笑鵲然和氣滿堂春 六秩聯登位鼎司平生義敬老
 何衰朝朝然問情無倦扶醉兄歸身授匙

오달지의스춘아와경외의
 부회가안호히네후의어인
 뒤풀러가기늘오달지제빛
 들푸라드리고사배야다가
 재호집호해반의사더라고
 오공우취유부비슬물호안드
 구되여형의미하라스양하
 고호조상위의들마나스양
 하야늑초아스수니구아스
 드밧디아기하야그밧뒤부
 고너라

達之曠野 北齊



노죄게 모양이 불심고디마
 장호도하러니 당시세아를
 나하두고스랑하야노조를
 상사에발지오라하야세아
 오위하야못은은라하야트
 그죄브르니하야게을이
 아너러니당시제알들글을
 그라보별제나피뒤와노조
 들잇술고채지미공스더하
 라하디라세아이스름은이
 고고파사화그사름이지의
 와이미조차하중하기논노
 죄을고질하야말고라하데
 그사름돌허시로날오디너
 기더아니하디니이세도죄
 노이이런어진형을물샤우
 리얼은의비무세호미은티
 아나토다하고서르노조의

盧操策驢隨



吳達之以從祖身敬伯夫妻荒年被略賣江北達之有田
 十畝貨以贖之同財共宅郡命為主簿固以讓兄讓世業
 田與族弟弟亦不受田遂開窰
 那堪骨肉沒與臺破產還投與共財職讓於兄田讓
 房天倫外物視塵埃 賣業慙勤贖房還同財共宅任
 飢寒世間無限爭田者聞却高風定汗顏

계절은 고가나라의...
 늘세아은미기며...
 당호물호가지로...
 티나

盧操事繼母張氏至孝張生三子溺愛之命操常執勤主
 炊為三序設席操服勤不倦張遣其子讀書命操策驢
 之操即執鞭引繩如童僕三序嗜酒縱佚抵忤於人致人
 踵門詬及其母操即身泣拜而解之惡少相謂曰不意三
 賊有此令兄某干犯長者不義也相與拜操而去毋亡訓
 養三序恩愛不衰

策一心願身免凡庸 如何三序性難移屢忤於人縱
 酒時詬辱及親乞拜乞能令惡少釋然歸

광진이 어버이 섬기름
 장지성으로 호미 잇힘
 이죽기늘거상하야삼년
 리에아니드티라야광
 안이몬죄지정하야노엄이
 집잇이름다앗티가광진이
 엄이주근후에야제집어터
 놀광안거거십이하과브티
 예글월와철낭티호방중을
 의열쇠를다형의거집의게
 보냈어광진이도로보내고
 날오티아즈미이척셔어
 님섬기고또어마님이집의
 이돌맛허하라하셔나고티
 더못하리라하고셔르집고
 더더저임양으로하나라

光進返籍唐



이이오잇이디다아니디니
 리어미노하양의잇노租시
 물이디가코할이드죽고두
 연이나하설다여신게누형
 이사오나아다정자야갈로
 머리물티기피두이되나호
 르고나아비누의술더게오
 사타나니라하양의이의게
 가니하승아비브티디아니
 가야늘다로피와하가호
 야글서주고갑바다막그사
 다타후에비늘늘피회야그
 되형이그저사맞혀니이정
 호를그광취곡이후며려다
 서하더다두형이며아보누
 의머다승아의조손물취두
 연의음덕니버버슬하니여

杜衍待兄家



李光進事親有至性母歿居喪三年不歸寢身先顏先娶
 而母委以家事及光進娶母已亡身婦籍滋蓄納管鑰於
 嫂光進命返之曰婦逮事姑且嘗命掌家事不可改因相
 持泣乃如初
 當年新婦拜姑前主饋辛勤久且專今日母亡那忍
 女泣還家籍故依然 萬古天倫終不泯乖離只在利
 鎔銖欲知身相安處須看斯門反籍圖

의히러라 노나노니노디위
 장의남진디지남일이니라

杜衍前母有二子不孝悒其母改適河陽錢氏祖母卒衍
 年十五六二兄遇之無狀至引劔斫之傷腦出血數升其
 姑匿之僅而得免乃詣河陽歸其母繼父不容來孟洛間
 貧傭書以自資及貴其長兄猶存待遇甚有恩禮二兄及
 錢氏姑子孫受衍陰補官者數人仍皆為之婚嫁
 ⑤兄心無狀母歸人引劔殘傷骨肉親出血數升無疾
 悉蒸蒸終化兩頑黨 天心福善理昭明豈為傭書致
 顯榮不獨子孫多受陰一門婚嫁亦能成

張存布錦唐

장존이보청이호도풍고풍
 성스랑가더니일즉추이편
 고을원가야가가가김이
 클외를어터와다지되다가
 뒤노허두고형제제모음
 들르히야가저가라가더니
 인즉날오더형제노손과발
 큰고안해와합은누이집사
 몹이니엇가누이집사문을
 문져고고손발로후에호료
 하더리이음들이엇仙더하
 남진거집일여하나로크릿
 되게야나하더라



孝
 子
 之
 行
 也
 夫
 孝
 之
 道
 大
 矣
 夫
 孝
 者
 天之
 經
 也
 地
 之
 義
 也
 民
 之
 行
 也
 大
 也
 夫
 孝
 之
 道
 大
 矣
 夫
 孝
 者
 天之
 經
 也
 地
 之
 義
 也
 民
 之
 行
 也
 大
 也
 夫
 孝
 之
 道
 大
 矣
 夫
 孝
 者
 天之
 經
 也
 地
 之
 義
 也
 民
 之
 行
 也
 大
 也

孝子折籍唐



張存性孝友嘗為蜀郡得綺繒文錦以歸悉布之堂上恣
 兄弟擇取嘗曰兄弟手足也妻妾外舍人耳奈何先外人
 而後手足乎收卹宗屬嫁娶窮娶不使一夫失所
 重堂上文繒盡向輪 手足何如外舍人肯先家室後
 天倫汝卹孤娶婚嫁畢誰能似子篤親親

趙彥霄兄弟二人同爨十二年兄彥雲惟聲色博奕是娛
 生業壞已逾半彥霄諫不入遂求析籍及五年而兄之生
 計蕩然矣公私逋負尚千餘緡彥霄因除夕置酒邀兄嫂
 而告之曰向者初無分爨意以兄用度不節恐皆蕩盡俱
 有饑寒之憂今幸留一半亦足以給伏臘兄自今復歸中
 堂以主家務即取分書付之火管鑰之屬悉以付焉因言
 所以逋負以已儲錢償之兄初有慚色不從不得已而受
 之次年彥霄一舉登第鄉人大敬服之

同爨曾經一紀餘可憐家業漸蕭疎無端析籍兄應
 恠丹慙他年見火書 兄蕩家資第析居五年贏得有
 遺儲慙慙更酌元霄酒從此阿兄復立廬

德理死獄唐
 德理死獄唐... (The text is partially obscured by the illustration and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德理死獄唐

이야 해를 지어다가 무표두
 가와 가치 들히 나와와가
 아나하나

화두형의비뒀소상들지호
 드호드르일흥나도호희
 고소상흥말하니그
 뒤기도지이러나뵈형이
 다다나숨기드도형이아
 라형이안소상흥다외고
 오배가자외여도조기하
 음두기리후기늘형도형이
 술여실오제나노조식이
 라어니와아오질와호고
 기기적무니내하위모의죽
 기지라호내하도조울고
 들오제비지및일을가형이
 출화하니내죽기지라하
 터니노형이구퇴여몽글
 리혀제와다팔로머히가
 때도죽들히거로도라호
 들스더더희호조가문어형

道卿引頸元



鄭德瑋弟德璋孝父天至晝則聯几案夜則同衾被德璋
 素剛直一日為仇必公陷於死罪當會逮揚州德瑋哀弟之
 見誣乃陽謂曰彼欲害吾也何預爾事我往則奸狀白爾
 去得不死乎即治行德璋追至道中兄弟相持頓足爭欲
 就死德瑋默許沮其行夜將半從間道逸去德璋復追至
 廣陵德瑋已死於獄德璋聞之慟絕者四負骨歸葬廬墓
 再暮每一悲號烏鵲皆翔集不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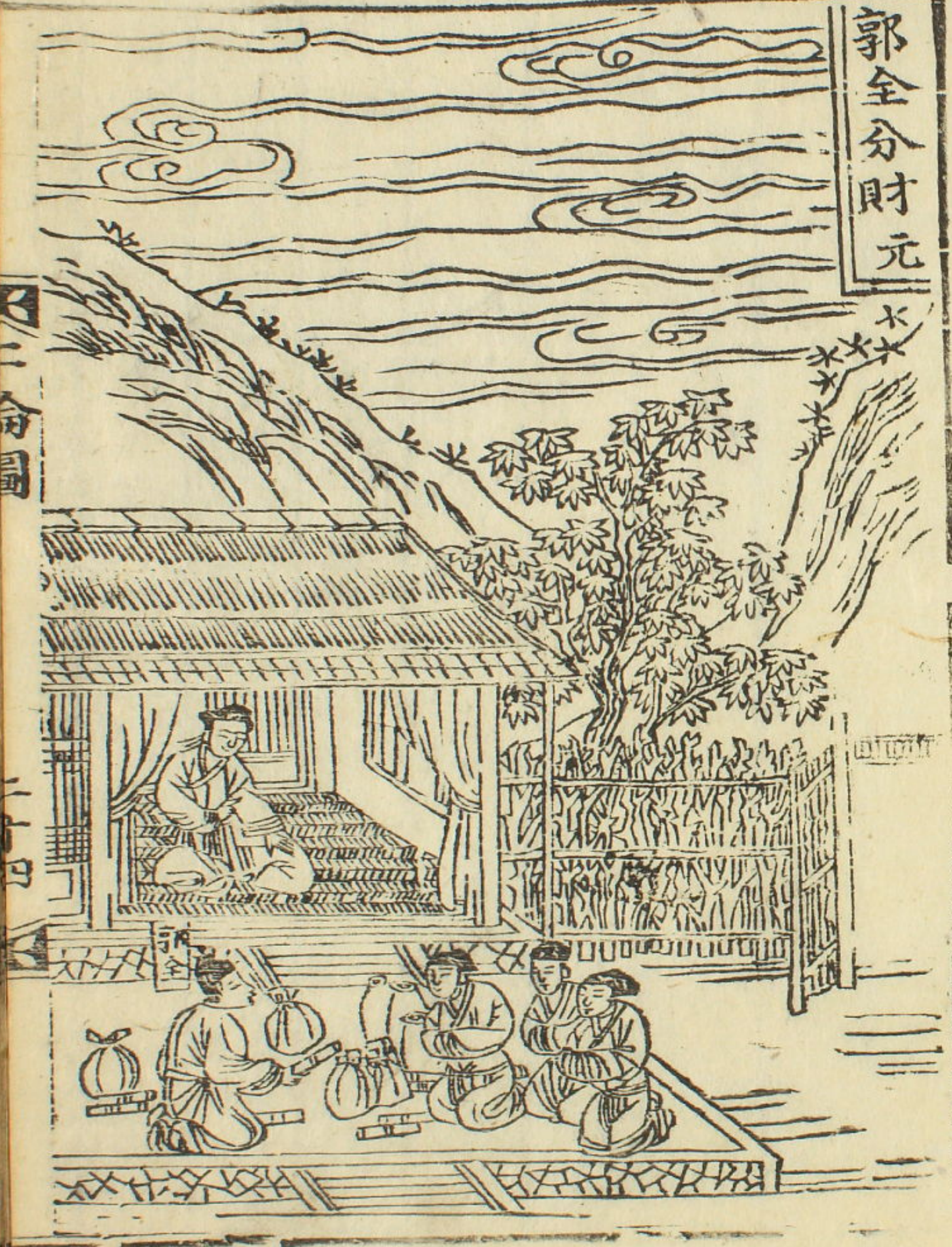
同衾聯几每相須不意剛剛陷罪誣視死如歸爭就
 獄牽留道上泣相扶 夜半潛歸死獄中廣陵追至
 何窮再暮廬墓哀號處烏鵲飛翔慰惡衷

同의리고나 나야엿다 胡亨
 是言也다 化日이니라

郭道卿四世祖以孝行著鄉里為立孝子祠元初盜起居
 民多走匿道卿與弟佐卿獨守祠不去俱被執盜將殺佐
 卿道卿泣告曰吾有兒已長弟弱子幼請代弟死佐卿亦
 泣曰吾家事賴兄以理請殺我道卿固引頸請刃盜相顧
 曰汝孝門兄弟若此吾何忍害兩釋之
 詩 居民畏盜競逃奔獨守先祠只弟昆孝行固知天所
 與肯教兇豎害元孫 弟兄爭死意堪悲賊膽還寒引
 頸時兩釋只緣誠孝感芳名傳世永無期

郭全이게도물장호호호
 다니게모게아문아하다
 거엇거불막천이손조디름
 거이머기며저라거늘디거
 집인디 니과과제간노화맛
 사자거늘막천이말니다가
 못고야맛디며지비머기물
 일다사오나온거늘가지
 고며오를모시살오디호
 무민을형지하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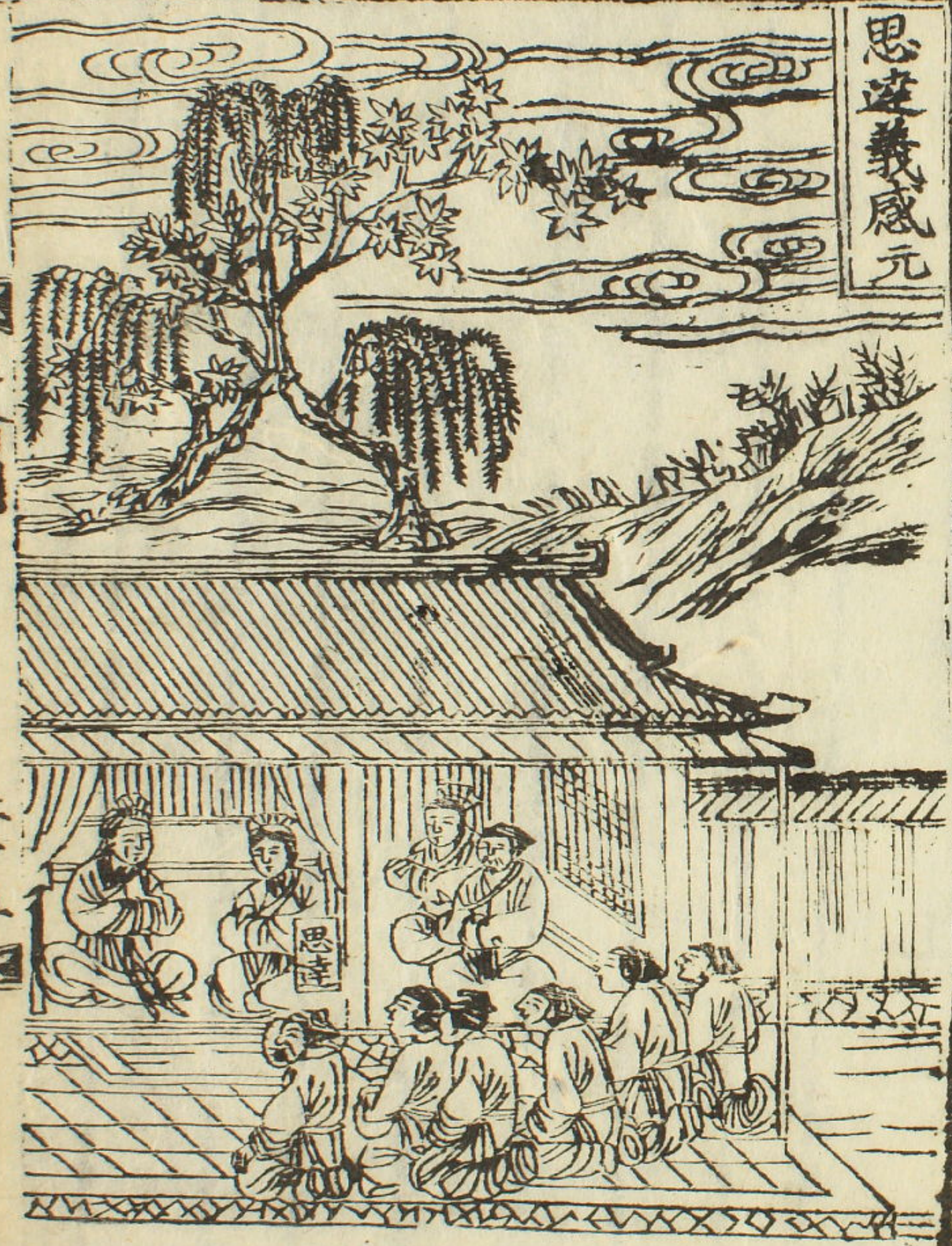
郭全分財元



命圖

上小 賢의 德에 이스시 아의
 명으로 세간 조화사러니 소
 달이 리 평슈 부되 앓다가 아
 비 죽거면 지 비와 송장고고
 하오 모도와 울고 이이 무려
 날오 뒤 우리 청예 파타 사
 리여 라 모히 니 어 리 하 산
 날 배 오 이 시 나 호 어 의 난 동
 성 이 시 오 나 오 며 호 호 미 고
 루 더 아 니 타 호 고 주 제 제 지
 빛 거 스 로 만 나 빛 들 호 구 감
 고 자 시 모 다 호 지 사 니 두 어
 허 못 하 야 서 집 제 헤 느 름 나
 모 와 비 드 남 기 호 리 브 리 나
 이 나 거 들 사 롱 이 날 오 제 어
 더 로 미 감 화 하 야 그 러 타 하
 러 과

思遠義感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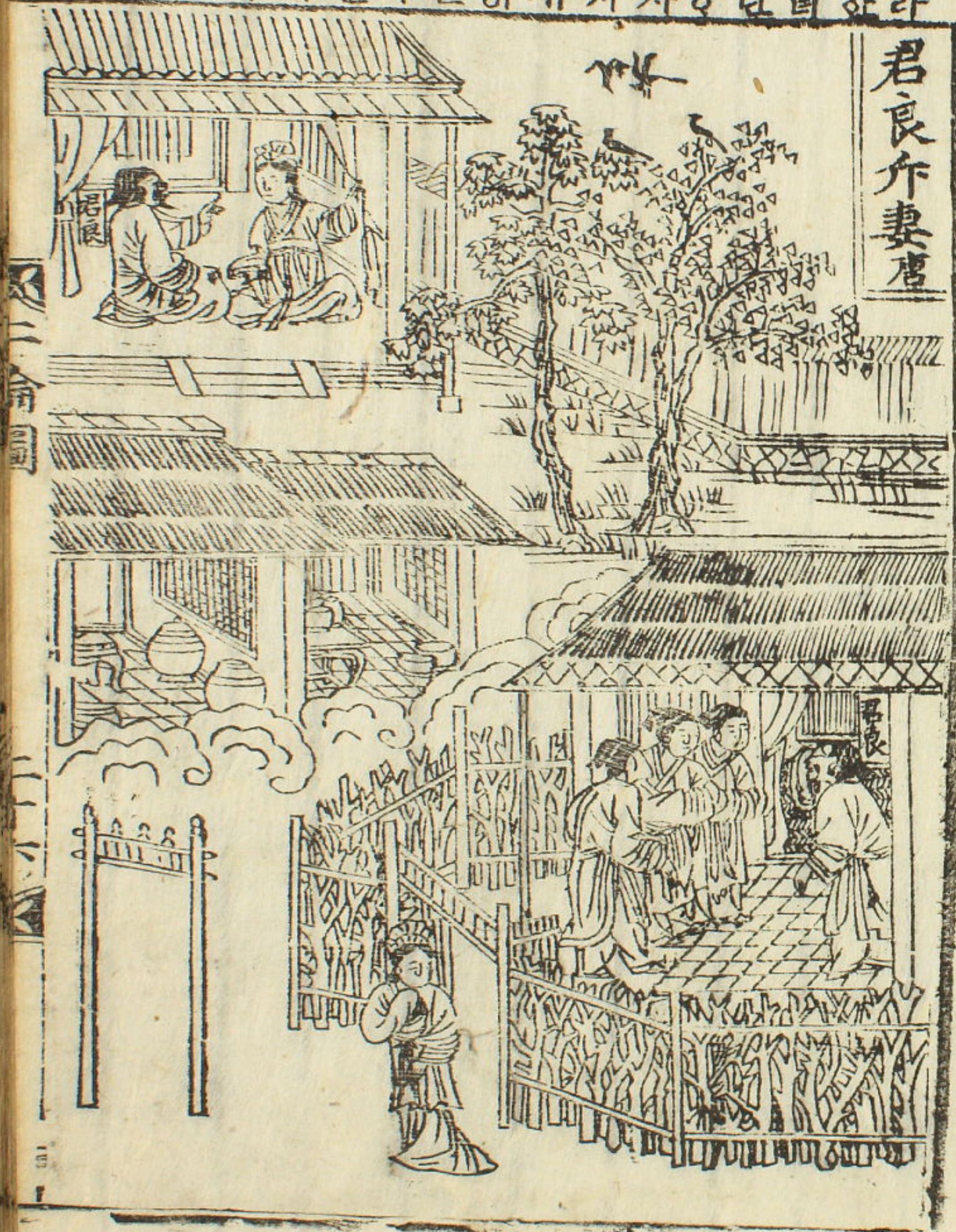


郭全事繼母唐古氏甚孝繼母生三子皆幼全躬耕以養
 既長娶婦各求分財異居全不能止凡田廬器物自取荒
 瘠枵腹者奉唐古氏以居甘旨無乏
 與著艱辛共備嘗一朝分異可堪傷薄田破器吾嘗
 取甘旨無違奉後孳 薛包孝義世稱賢豈料君身更
 兩合青史昭垂名不泯又從圖畫上新編

平正량이 배덕을 호여 사라
 복초형제 동성스리니 칭안
 部호말말호차김불아류의
 이이너호타라시절이간년
 此는거지비파타살라현호
 여불헛남기가파차기자
 리밧고아노하사화우지
 11글지빛사미황방이더기
 더너게지비늘오더시절이
 어즈러워새도호되못잇은
 호몰여사루이여형제과파
 닷티사니호되나그그를
 알고계지블내티며늘오더
 비배것일호여브리티니라
 형제를블러올며니르고파
 사호되사러나라히정호
 지니라

君良弁妻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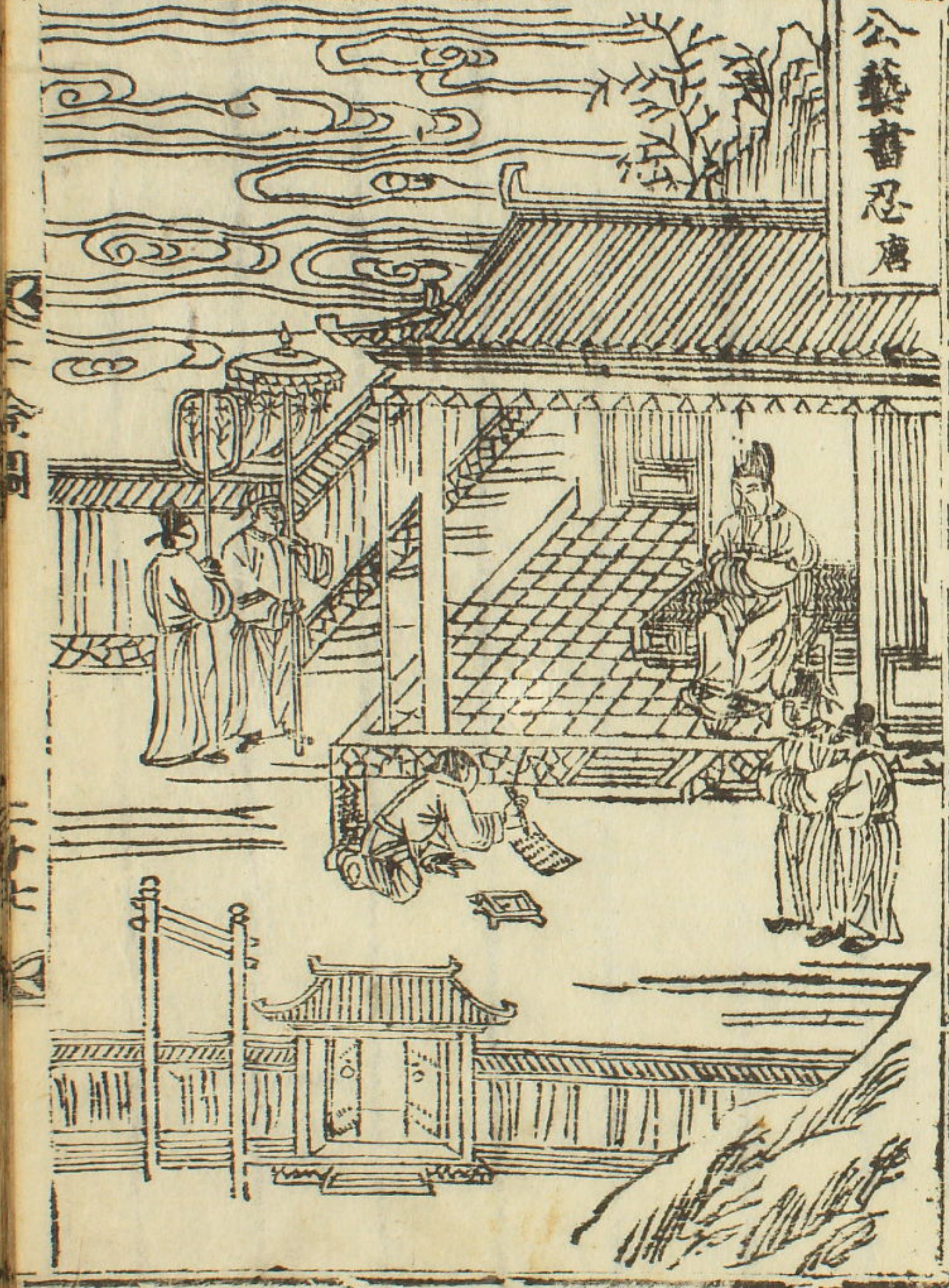
二倫行實宗族圖



吳思達元第六人嘗以父命折居思達為開平主簿父卒
 還家治葬事會宗族泣告其母曰吾兄弟別處十餘年矣
 今多破產以一母所生可使兄弟若樂不均耶即以家財
 代償其逋更復共居不數年宅後榆柳為之連理人以為
 義所感焉

曾承嚴命各分居憂樂參差十載餘泣告慈親辭感
 激弟兄和氣塞窮閭一體而分六箇身悲歡饒齊豈
 宜偏捐財償債還相聚榆柳終看理亦連

상공에 아홉을 세우니 사
 여러 날을 지내니 정초가
 니 후의 남음이 배봉나겨
 다다그 지 비하정하사 공
 광불하보쉬그아 음말화
 풍하마이 물루트신해 공
 종히브를 주신하여가
 호위조하에 물은 상을
 외나마제전상하니라그
 테디고저아근의화동차
 니호문일운이오말을
 아니주거나아랫전가
 이레결리그르거나서외
 다마자호로로슬미되
 니가과서르조면지빛이
 리...인히화동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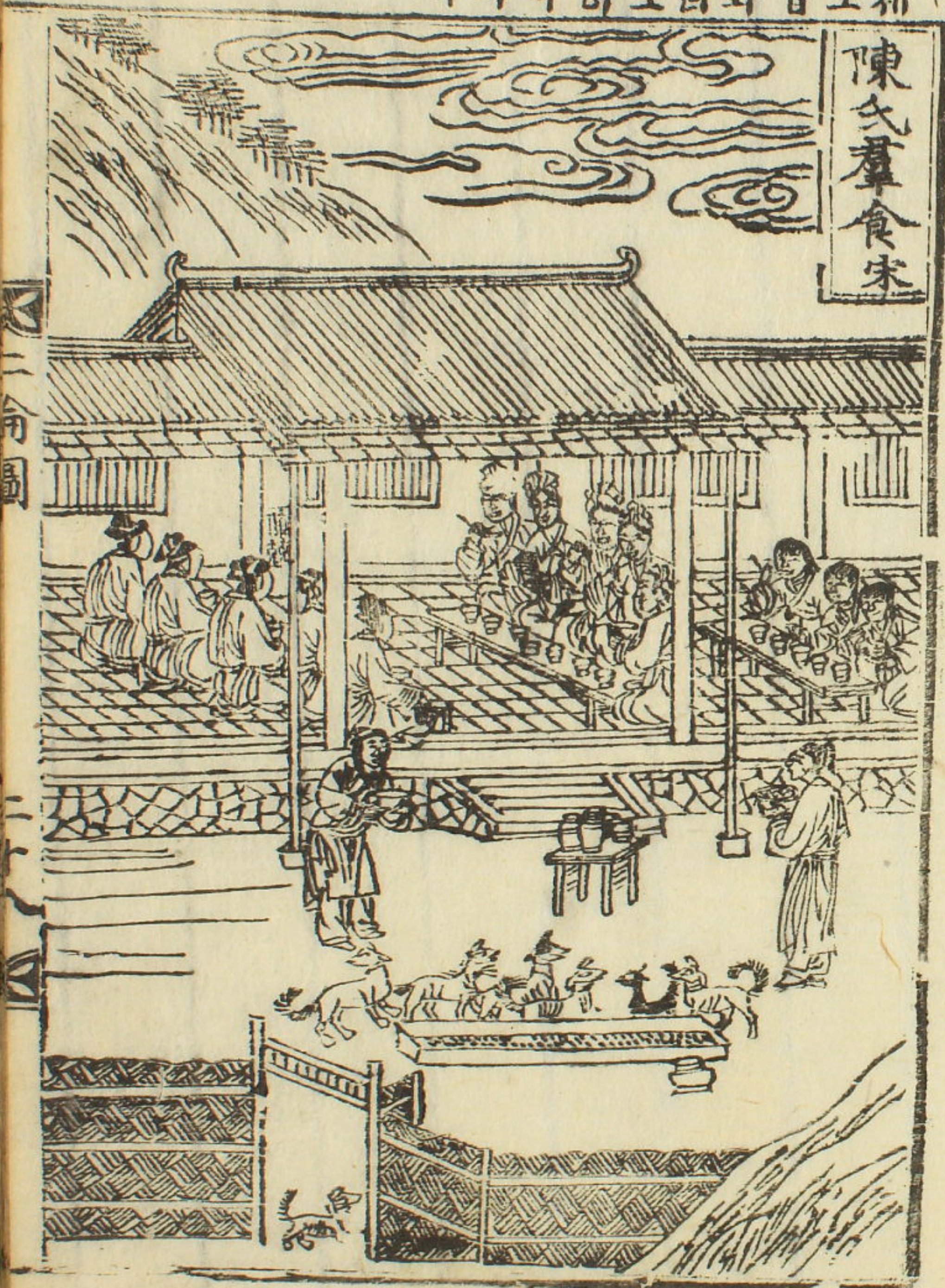


公藝書忍唐

劉君良四世同居族兄弟猶同產也門內斗粟尺帛無所
 私隋大業中蓋饑妻勸其異居乃易置庭樹烏雞令鬪且
 鳴家人恠之妻曰天下亂禽鳥不相容况人耶即與兄弟
 別處月餘密知其計因斥去妻曰爾破吾家召兄弟流涕
 以告更復同居貞觀六年表異其門閭
 世同產業更同居四代相傳不火疎一婦邪謀寧問
 我從教兄弟復如初 斗粟其誰敢自私要同門內給
 寒飢滷滷好貨私妻子視此如何不恠呢

김공이 강위사사타니 열세
 뒤을 호위살이 일운아히모
 그와 할복키로 뒤종이 며칠
 을 두지 아니코아래우히화
 동궁에서이에잡말이염터
 라리양밤어출계근집외모
 카안자제문아힐노그별이
 듯이라안치타리가히일박
 이나모뒤호구유에법주의
 호가히나아나가면모도기
 리다아니말리나

陳氏羣食宋



張公藝九世同居北齊隋唐皆旌表其門高宗封泰山幸
 其宅召見公藝問其所以能睦族之道公藝請然筆以對
 乃書忍字百餘以進其意以為宗族所以不協由尊長衣
 食或有不均卑幼禮節或有不備更相責望遂為乖爭苟
 能相與忍之則家道雍睦矣

世人分割不同慮獨有張公九世居帝問由來能睦
 道但將忍字百來書 禮嚴卑幼缺應類尊長衣飧或
 未均忍不出言相責望怡怡家道自相親

이름이 지대로 모른다. 선조의 이름은
오랜 옛날부터 주위에서
조금씩 알려져서 후한 때부터
늘어날 때까지 고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모아야 함의 가난
하니 물이 밭이 내 이름 듣게
부하고. 그러나 하나도 알지
않고. 오마라 집가 술대어 드
리다. 하나하나 하는 대로
고고. 고한데. 고한데. 고한
데. 남진제집어 리어. 상시에
다유어허주 리라. 지상. 의야
저는. 향고. 울히. 분. 향. 제. 가. 밭
고. 해. 어. 리. 보. 다. 고. 한. 길. 삼. 현
필. 들. 잊. 거. 들. 리. 가. 야. 아. 오
마. 고. 온. 천. 아. 나. 사. 들. 크. 가. 가
자. 나. 다. 리. 들. 향. 야. 그. 길. 을.

仲淹義程



陳兢居江州自昉至兢十三世同居長幼七百口不畜僕
妾上下姻睦人無間言每食必羣坐廣堂未成人者別為
一席有犬百餘亦置一槽共食一犬不至羣犬皆不食
圖七百餘人未忍分高曾叔姪暨仍雲十三嗣世同次
爨每食長筵列作盤敦睦家風世所崇說說長幼一
堂中欲知感化冥冥裏看取槽中百犬同

호러다 주라코 날오 터야
 平口을 들히 배의 스라 글
 쿠의 슬하가 든 보고 날도 아
 21년 2월 21일 21년 2월 21일

호러다 주라코 날오 터야
 平口을 들히 배의 스라 글
 쿠의 슬하가 든 보고 날도 아
 21년 2월 21일 21년 2월 21일

陸氏義居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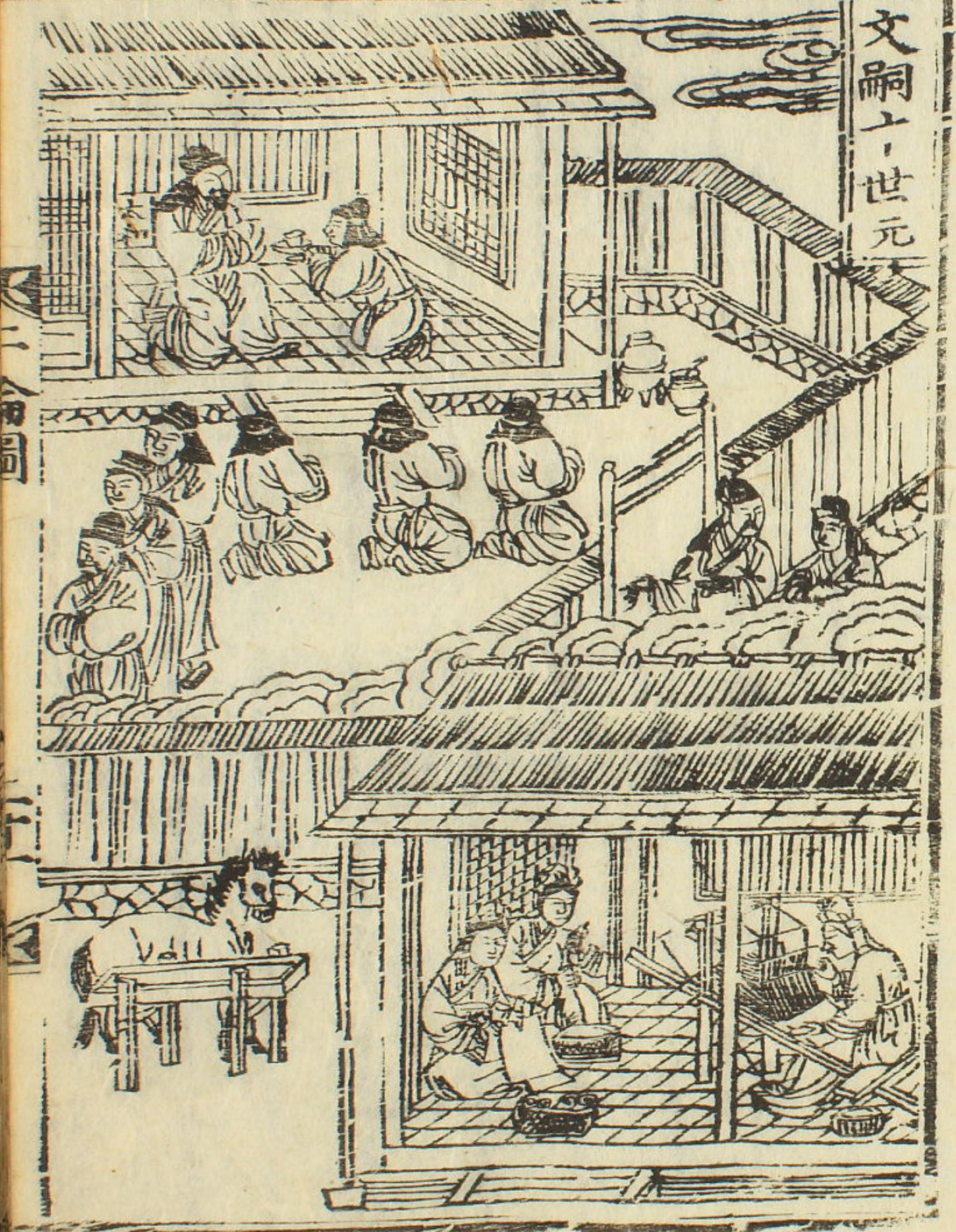


范仲淹輕財好施尤厚於族人既貴於姑蘇近郭買良田
 數千畝為義莊以養羣從之貧者擇族入長而賢者一人
 主出納人日食米一升歲衣縑一匹嫁妻喪葬皆有贍給
 自政府出歸姑蘇焚黃搜外庫惟有絹三千匹令掌吏錄
 親戚及閭里知舊自大及小散之皆盡曰宗族鄉黨見我
 生長幼學仕仕為我助喜何以報之哉
 千畝良田豈自圖盡施宗族遍親疎匹衣升食無他
 費婚葬相扶亦有餘 庫中搜得三千絹一日親知盡
 散之聊報鄉閭助吾喜相公曾不念家私

陸九韶其家累世義居一人最長者為家長一家之事聽命焉歲選子弟分在家事凡田疇租稅出納庖爨賓客之事各有主者九韶以訓戒之辭為韻語晨興家長率衆子弟謁先祠畢擊鼓誦其辭使列聽之子弟有過家長會衆子弟責以訓之不改則撻之終不改度不可容則言之官府屏之遠方

詩 割戶分門薄俗然義居陸氏事堪傳區分職任由家長出納承迎禮罔愆 韻語丁寧是訓辭晨興擊鼓誦先祠固知有教元無類誰敢將身蹈匪彝

文嗣一世元
 其家累世義居一人最長者為家長一家之事聽命焉歲選子弟分在家事凡田疇租稅出納庖爨賓客之事各有主者九韶以訓戒之辭為韻語晨興家長率衆子弟謁先祠畢擊鼓誦其辭使列聽之子弟有過家長會衆子弟責以訓之不改則撻之終不改度不可容則言之官府屏之遠方



文嗣一世元

戶동정배일 개라 하야 프상
 동니라 개해형덕 하야 프상의
 도스의 일아 나코의 식주
 가래대로 하디니 손이
 주호도코삼가타라 모도며
 나리 들흔거 집이 일안하이
 정잇공스를 참예아 나개
 디라일의 두물들 두되호
 물과 나가면 호물 이음식
 주디며 단기 사음 이 하하갈
 주하 하그리 타 하디라

元伯同慶元
 이 일의 아 나 모위스 이예말
 이 일의 라 나 갈 모로 거 집이
 며 며 느 리 물로 호 하 모 다 서
 일 하 야 호 고 아 에 허 푸 고 아
 동 도 이 과 유 아 나 하 디 라 아
 해 울 어 든 모 도 이 미 보 조
 초 아 나 첫 덕 이 나 호 며 느 리
 처 어 버 외 심 의 갈 위 아 기 를
 두 고 나 면 모 도 며 느 리 모 다
 첫 어 거 아 모 아 기 제 조 식 인
 주 리 모 로 며 아 기 노 아 의 제
 어 인 주 을 고 르 더 라 원 밖 의
 형 선 의 이 주 거 들 집 의 이 를
 행 의 아 두 리 게 맛 단 게 그 아
 두 리 스 양 호 위 아 자 비 호 거
 시 라 원 외 이 널 오 데 네 승 등

元伯同慶元



鄮文嗣其家十世同居凡二百四十餘年一錢尺布不取
 私文嗣沒從弟大和繼主家事益嚴而有恩家中稟如公
 府子弟稍有過頒白者猶鞭之每歲時大和坐堂上羣從
 子皆盛衣服鴈行之左序下以次進拜跪奉觴上壽畢皆
 肅容拱手自右趨出見者嗟慕余闕為書東浙第一家以
 褒之大和方正不奉浮屠老子教必稽朱子家禮而行子
 孫從化皆孝謹諸婦唯事女工不使預家政家畜兩馬一
 出則一為之不食人以為孝義所感
 宗怡肅肅政連綿十世同居二百年伏臘壽觴尊禮
 教傍觀嘖嘖羨羣賢 家法嚴恩冠浙東不遵釋老尚
 儒風諸孫孝謹皆從化畜物雖微亦感通

善不식이라 비홀기시라
 로오래스양나가비동애아
 誰아될맛기니후에나라히
 誰이지다야야홍문세니라

元伯四世異爨家人百餘口無間言日使諸女諸婦
 各聚一室為文工畢歛財一庫室無私藏幼兒啼泣諸母
 見者即抱哺一婦歸寧留其子衆婦共乳不問孰為己兒
 兒亦不知孰為己母也元宣伯卒即以家事付姪執執解
 曰叔父行也叔宜主之元伯曰姪宗子也姪宜主之相讓
 既久卒以付元元間旌表其門

四世同居不於居女工勤聚不私儲兒啼已百相爭
 乳不問何爨天多姐 已矣兄亡可得追盡將家事付
 宗兌一門叔姪相推讓高義堪為後世師

善不식이라 비홀기시라
 로오래스양나가비동애아
 誰아될맛기니후에나라히
 誰이지다야야홍문세니라

范張死友漢



이불러보오더거경아제아
 오불종어아동서총장호는
 나날넷허아1기든이형호
 나라명석아들기나불서
 말인호야무들허해가호더
 광아아나가거늘그아미광
 을모저며머들어두고보
 할을게을고오거늘이이날
 오더이반두시거경이로다
 거경이와상여를두드리며
 날오더너거라원복아말히
 쿠르너이리허여허자범석
 이광을차바들의니개시나
 아너거늘거괴이서못고나
 무시고고가니라

루호외와잇디공이갈저업
 시가거늘루회백공학호더
 밤막도머루호외거점도터
 공외거집파호외밤막을허
 오레거늘척척이2장술
 희여호타니루회을머척척
 직을허디저일오더티공을
 깃밧다나늘고공박호외제
 개와외막호나너저정호외
 하을호나라호고티공을
 도록이바다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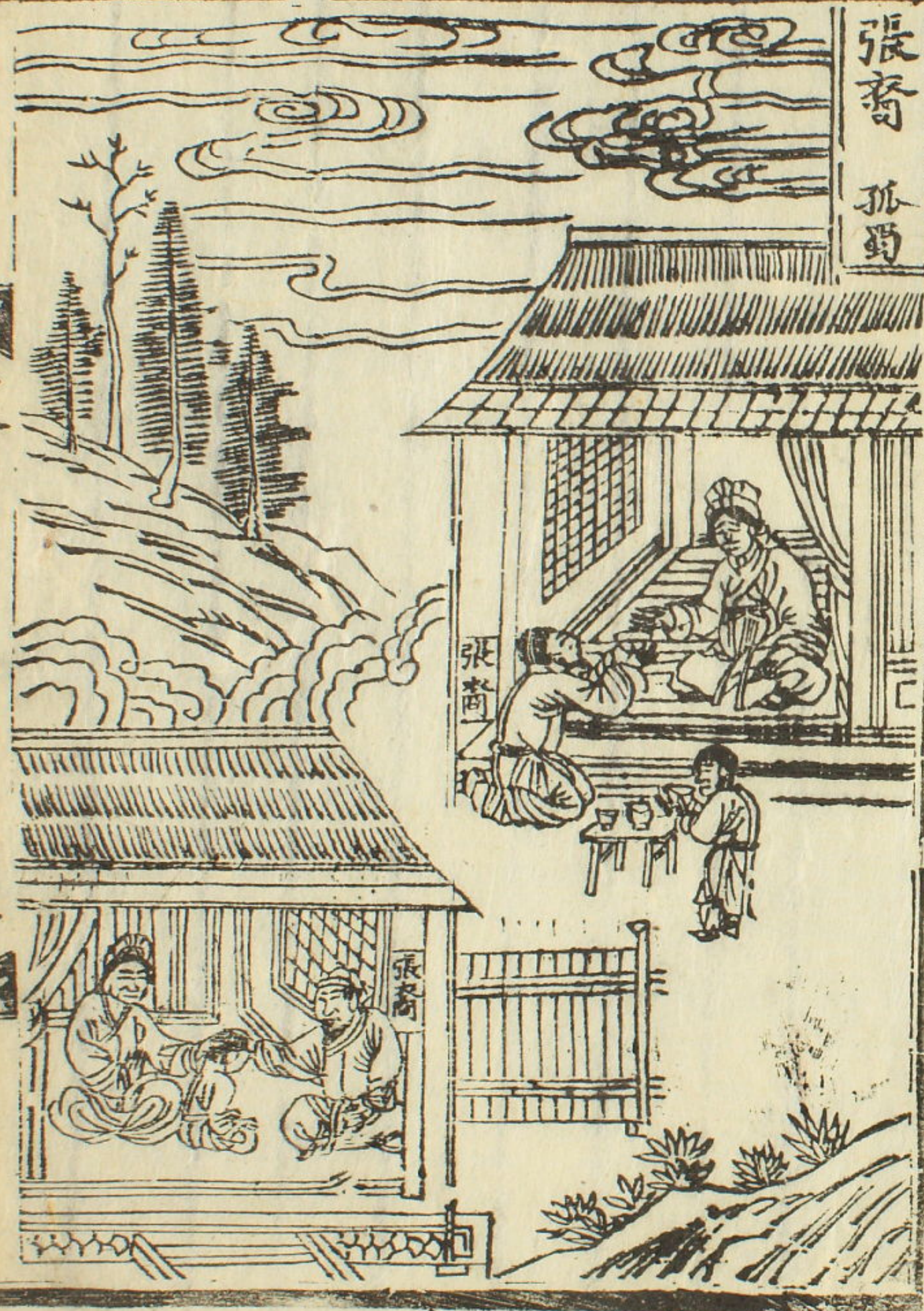
樓護養呂漢



范式與張元伯並告歸鄉里式謂元伯曰後二年當過拜
 尊親乃共尅期日期將至元伯請設饌以俟之母曰二年
 之別千里結言何相信耶對曰巨卿信士夫不乖違母曰
 若然當醞酒至其日巨卿果至并堂拜飲巨卿式字也後
 元伯疾篤歎曰恨不見吾死友范巨卿尋卒式忽夢見元
 伯呼曰巨卿吾以其日死某時葬子未我忘豈能相及式
 便馳往赴之喪已發引既至壙而極不肯進其母撫之遂
 停柩移時乃見素車白馬號哭而來母曰是必巨卿也巨
 卿既至叩喪言曰行矣元伯死生異路永從此辭式因引
 柩於是乃前式遂留止冢次為脩墳樹而去
 千里相期二載餘眼青堂上見華裾壽觴共進浮春
 色始喜吾兒語不虛 白馬馳來是巨卿夢中相感亦
 丁寧攀號永訣柩還進誠信應通地下靈

후나라 양에 과친원이 되어
 서취문제 양공과 가피더니
 양공이 일죽고 주식이 두어
 설도 못하네 남양에 두려
 다가 집을 노화사더니 양공
 의엄버튼심기더비엄이
 타야 양공의 주식이 주라
 거닐거집일이 고집전이며
 위간주어 살게 주니라

張齊 孤蜀



樓護有故人呂公無所歸護身與呂公妻與呂姬同食後
 護妻子頗厭呂公護流涕責妻子曰呂公故舊窮老托身
 於我義所當奉遂養呂公以終身
 故入投我為無歸義所當為不敢辭身勸呂公妻為
 姬一盤鹿糲當甘肥 久寓人情生厭殺樓公垂涕責
 妻孳慙慙奉養終身世舊意從前誓不孤

나도 종이 모양이 강개하고
 고더니 영관적의 상소가다
 가외다 하여 남녀희향가
 리니 흥취향가여사외나
 니길해기향가여풍을제을
 고닐오디자풍이주글기
 어니와향자니이사해별은
 티다련도풍이닐오디나
 못도라오면내풍이그더로
 혼자해잇해아니호리라글
 심해글고자사카호히나아
 사나기글을제맛초와비와
 물이만저글무든사홍일코
 도풍이드모해셔우노라후
 니를결가온대셔영노손노
 도풍기글도풍이닐오디후
 곁곳잇거든다시글늘라크
 너르니글이노는속결은

道珠尋戶



二倫圖

三十五

蜀國張裔先主以為巴郡太守少與楊恭友善其蚤死遺
 孤未數歲裔迎留與分屋而居事恭母如母恭之子息長
 大為之娶婦買田宅產業使立門戶

〔註〕少結金蘭著意長死生雖異義何忘撫孤將母皆如
 己竟買田莊使主張友道由來貴不渝張公信義孰
 能傳世間覆雨翻雲者見此寧無愧汗流

태은어지여분향의도라
 二二

羅道琮慷慨尚節義貞觀末上書忤旨徙嶺表有同斥相
 善者死荆襄間臨終泣曰人生有死獨委骨異壤耶道琮
 曰吾若還終不使君獨留此瘞路左去歲餘遇赦歸乃霖
 潦積水失其殯處道琮慟諸野波中忽若溢沸者道琮曰
 若屍在可再沸祝已水復湧乃得屍負之還鄉
 天涯同謫共辛酸委骨殊方涕自潛玆重臨終盟約
 在將身何忍獨生還 鷄書似與潦相期草莽江息夫
 所之 片丹誠天感應波中溢沸豈人為

오보안은팍동상의호모을
 각들이라동상이중박호출
 을어엇비더거형씨천거하
 여장서기벼슬하이니후에
 동상이되제자되여가김일
 천필맛고야노하보내려거
 늘보안이사내고취하거김
 이협위침씨홍정필후여열
 헛안의김침씨필어티되를
 주고동상을내어오니티후
 세동상이엄의기상벗고닐
 오더내오보안의덕의사라
 나니이제엄이죽으니내벗
 때로호리라그취보안이
 나가죽고더지보죽어신
 데를못가죽엇기늘동상이
 의하여가상남고해주어어
 허신벗하지여가송장자고

兵郭相報唐



二二

三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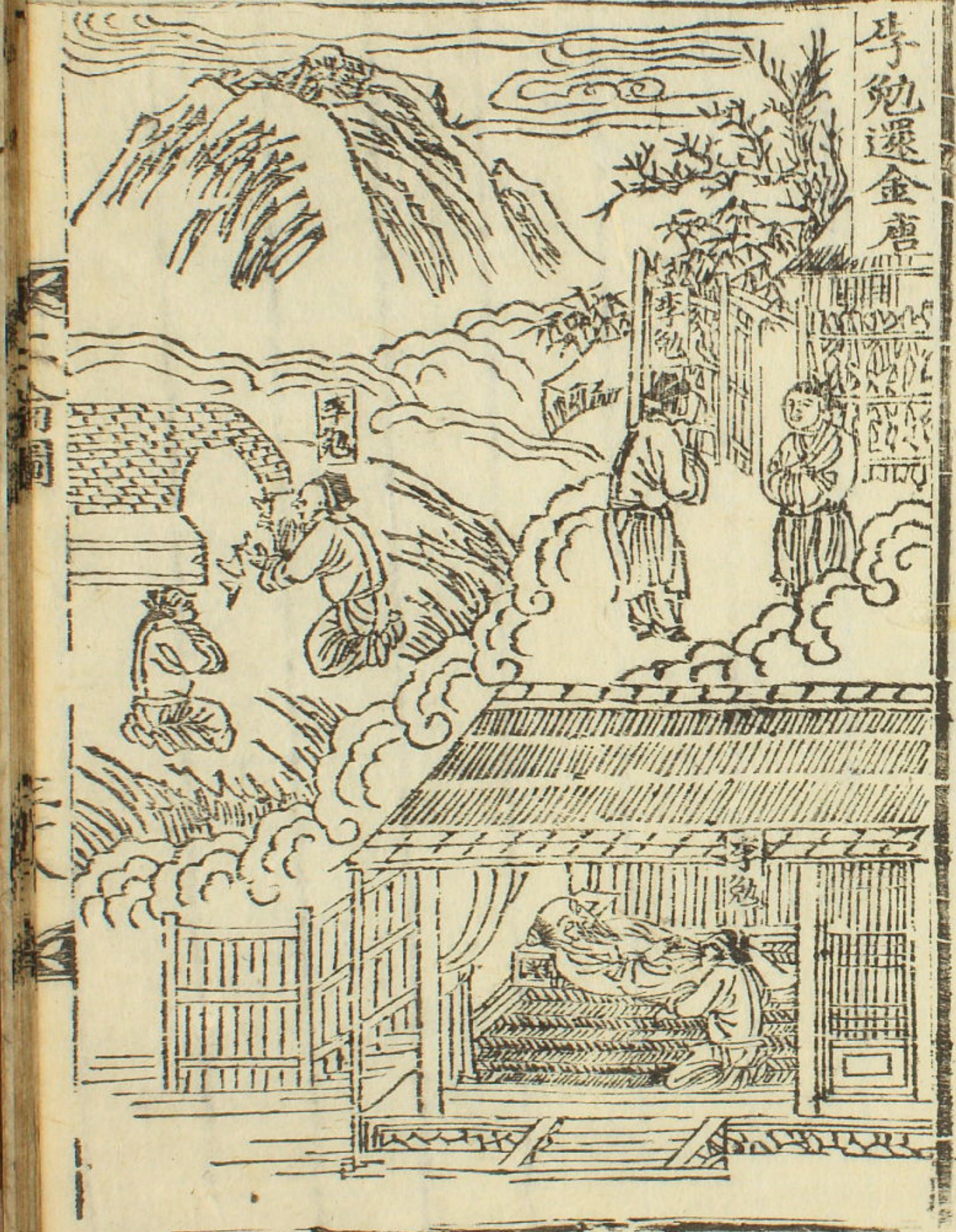
삼천시묘살고보안의주
 두러다가거집살이그개비
 주스르니라

吳保安郭仲翔里人也仲翔哀其窮力薦之表為掌書記
 後仲翔被執於蠻必求千緡乃肯贖保安營贖仲翔苦無
 貲乃力居貨十年得緡七百即委蠻得仲翔以歸後仲翔
 居毋喪及服除喟曰吾賴吳公生今親沒可行其志時保
 安客死妻亦沒喪不克歸仲翔為服練經囊骨徒跣負之
 歸葬廬墓三丘迎保安子為娶妻而讓以官

義投蠻乞救恨家貧力索千緡贖一身負葬服練還守
 墓感恩終報再生人 滄滄盡是翻雲手 古稀逢信
 義中感激恩情期必報 兩人高操激婦回

저믄계고난고여나
 너되여서죄외들라호주
 인에외허니호죄비병고여
 주를죄을을서면이주며날
 오더겨릿사름이모르너
 고기이은을날총장애반고
 남거든그대가더라니면이
 그리호려호고총장호호애
 고마니그은을판이래너코가
 니후에제점사름이니면이
 들외라가나니면이느려나
 름여리은을개여주나다

李勉還金唐



석회외사피노양방이피니
 비평아자심해원을가거늘
 아오벗들히거허가보리업
 디니석회호자얼리가전송
 호머저상권덕예닐오뒤남
 해원표송하니외다호여도
 엇덜다석회닐오뒤내버슬
 못호러지남해나를아디너
 이귀차마브리라호터라여
 풍이누미개찰터나가거든
 크리호를거시엇하터예크고
 도주를일코터라니이간이
 석회를현기호여감찰어스
 호여닐가사례호고철기호
 주를무를대이간이닐오뒤
 그뒤양남하들저여버리디
 하니거나라호를저여버릴

徐晦不負唐



李勉少貧客梁宋與諸生共逆旅諸生疾且死出白金曰
 左右無知者幸君以此為我葬餘則君自取之勉許諾既
 葬密置餘金棺下後其家謂勉共啓墓出金付之
 逆旅同棲樂苦辛臨終訣語忍堪聞死生付托無相
 負高義千秋孰似君 葬君餘是為吾物若取而歸是
 負心察取餘金棺下置此心皎皎彼蒼臨

徐晦所善楊憑得罪貶臨賀慰姻友憚累無往候者獨晦
 至藍田慰錢宰相權德輿謂曰君送臨賀誠厚無乃為累
 乎晦曰方布衣時臨加知我今忍遽棄耶有如公異時為
 奸邪者斥又可用乎德輿歎其直稱之朝李夷簡處事為
 監察御史晦過謝問所以舉之由夷簡曰君不負揚臨
 賀肯負國乎

詩自許相知舊布衣那堪遠謫送將歸一身有累何曾
 計送至藍田不忍離相公推薦應非苟稱職終為御
 史官不負相知寧負國高名一口上朝端

송나라사론사되동장판리
 가나하여길나리못하외기
 날현당돌히드남안남모도
 와주나결나가다가아외번
 티움의집의지나드니티움
 이주기서송장못하외그하
 들공라호려기늘사되제갈
 人도을다바여주고외그하
 들남제일이개하니라

查道傾囊史



이의와나와마이금미국
 하야기제다가나하타나호
 하하을동공가하나도분리
 하하공이되타와공이분
 리금제하야당사현하야관
 리제집의물경마고호한의
 이집기서고은못미처호름
 기호하야서분오디고은사
 공이을가제페라고고집에
 다모돈이뉴보이있기분만
 온한의이주고서르집고마
 장을고가니호방애한의이
 도금테하야벼호참형의이
 하야호인하키불그치하
 나공터라

韓李更僕宋



查道淳化中初赴舉貧不能上道親族貸錢三萬遺之道
 出滑州過父友呂翁家翁喪無以奠母兄將鬻其女以辦
 襄事道傾囊中錢悉與之又嫁其女
 義重財輕見景明貧難赴選亦無營却將親戚衰錢
 橐都為先人執友傾 元振今亡可奈何唯謀鬻女不
 謀他橐錢傾與供襄事奠毋埋兄濟一家

韓億이 안동에서 오니...
 韓億이 안동에서 오니...
 韓億이 안동에서 오니...



純仁麥舟

韓億李若谷未第時皆貧同試京師每出謁更為僕李先
 登第授長社縣主簿赴官自控妻驢億為負一箱持至縣
 三十里李謂韓曰恐縣吏來箱中只有錢六百以其半遺
 韓相持大哭而去後舉韓亦登第任皆至叅政為婚姻不
 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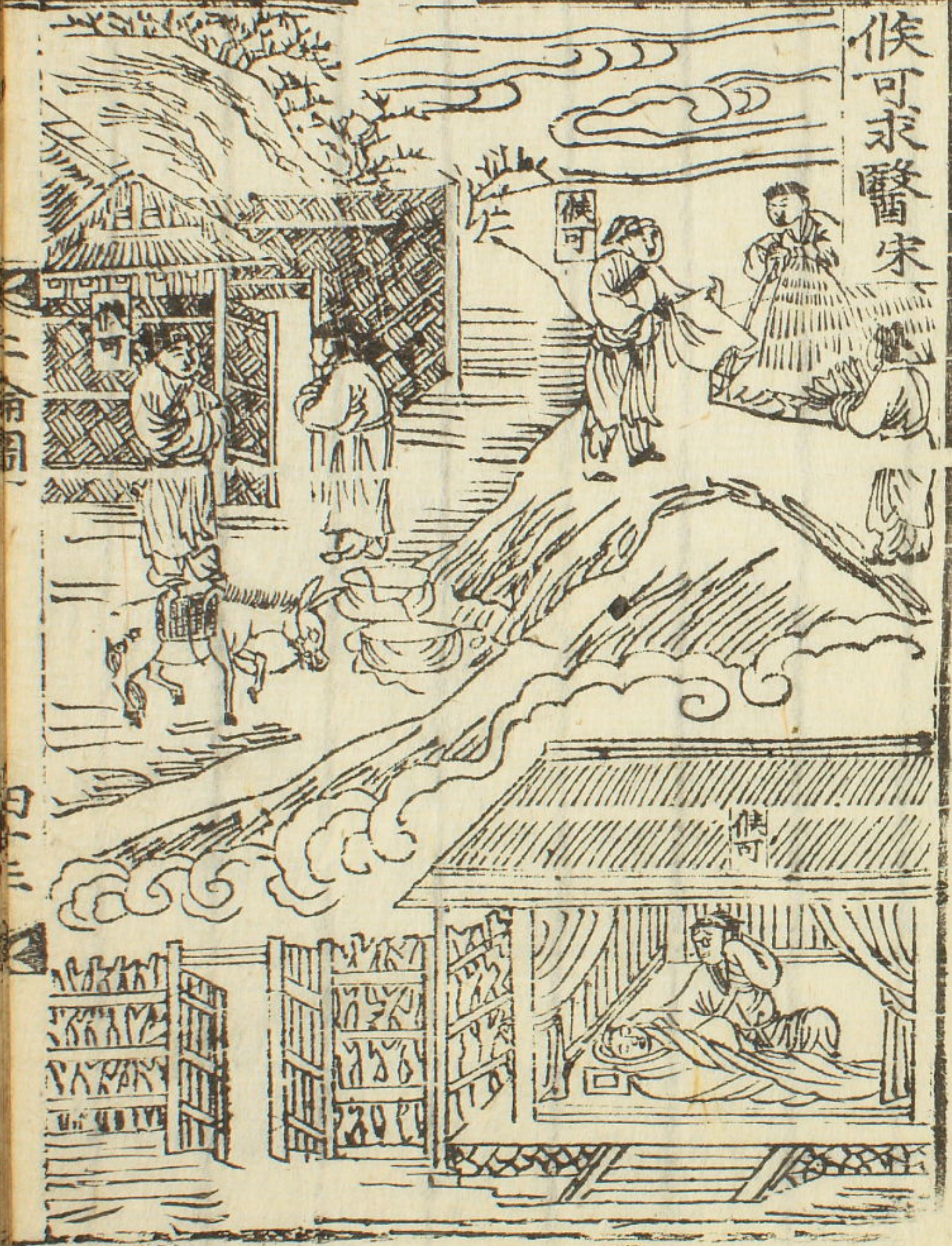
二子同時舉上都何嫌出謁迭為奴而來貧賤交尤
 密榮辱升沉兩不渝 自控妻驢赴縣時韓生猶復負
 箱隨分餞道上相持哭從此連姻義真虧

은비로 주지 아니 할지언인
이슬오디 떨어 주니 이라하
리라

范純仁仲淹子也仲淹在睢陽純仁到姑蘇繼麥五百斛
純仁時尚少既還角次丹陽見石曼卿問寄此久何也曼
卿曰兩月矣三喪在淺土欲葬而此歸無可與謀者純仁
以所載麥舟付之單騎到家拜起侍立良久仲淹曰東吳
見故舊乎曰曼卿為三喪未舉方留滯丹陽時無郭元振
無可告者仲淹曰何不以麥舟付之純仁曰付之矣
誰教小范往姑蘇大范親提汗血駒搬到義聲輪老
子麥舟五百視錙銖 歸來侍立喜津津不問歸老問
故人為不麥舟付襄事茲行終是負嚴親

후개환원원을후니전문제
부터신안와사피터니신
안이병호옛개원철나에가
의원엇더니도라오지못하
여셔신안이죽어는늘금디
아니커늘사름이불오뒤후
개원기도로노라일이뵈노
구개환원환원으리라하
고소노도민저나늘금디
나리신안이부식업서송장
못하여하거늘후개슈고하
여오공과슈공주어내공하
상장하나라후개반야호로
치은제호웃남고잇다하여
은주기잇더니신안이누의
최터로인노즐을보그은
을주어결속하라하니라하
로말리나자자가오니집의

候可求醫宋



行些其업세라니르러니가
 초가번막형이와날오디내
 비명호여의원의게고티
 라호니돈말만히말라호니
 대집을고라도못소리리르
 千高用호개어엿비너너너
 에보너제짐에오기서거의
 一말가서부거늘다주니라

候可為華原主簿火與申顏為友顏病重千里為求醫未
 歸而顏死目不瞑人曰其作君乎且歛而可至拊之乃瞑
 顏無子不克葬可辛勤百營爛衣相役卒葬之方天寒單
 衣以居有饋白金者顧顏之外處室舉以佐其奩具一日
 自遠歸家以寔告適友人郭行扣門曰吾父病醫遠錢百
 千賣吾廬而不可售可惻然計中裝略當其數盡與之
 關中稱為賢

辛勤千里遠求醫生死知隔此時張目瞑時靈不
 昧驚衣空相送終儀 郭牛盤素還資急顏妹遺金更
 頑窮不負一心生死際華原高義薄層空

二倫行實師生圖

云敬自効漢



한 一 敬은 漢이 호고 敬을 敬
 이 를 스승 사 맞혀 기 왕 망 이
 오 장 이 을 주 기 고 오 장 의 제
 조 일 천 나 마 니 을 호 단 이 가
 호 여 더 금 고 호 야 비 술 못 호
 기 호 나 다 못 더 다 근 니 를 스
 형 삼 더 니 윤 창 이 제 비 술 말
 고 내 오 장 의 테 지 로 라 호 고
 오 장 의 신 테 들 아 나 입 판 호
 야 송 정 초 매 설 을 해 일 코 더
 라 왕 호 이 어 더 리 너 거 천 기
 호 여 등 당 과 태 우 비 술 호 이
 니 라

한영이 저문지 선술과 글씨
 의 구강의 잇노 주보를 섬디
 상서를 배호되 가난 후어발
 업서 상해니 미일후어며
 고서침해게늘이 아니후어
 열취를 짐의 일보치 아니터
 라 마초아 주보죽거 불환영
 이분상후어 구강의 가호리
 의 무림영고인후어이서
 무지니 데기이되이나
 기다

桓榮奔喪



漢云敬師事同縣吳章平帝時章為博士王莽秉政章忤
 莽坐腰斬當是時章弟子千餘人莽以為惡黨皆當禁錮
 不得立宦乃盡更名他師敬時為大司徒掾自劾吳章第
 子枚抱章屍歸棺斂葬之京師稱焉車騎將軍王舜高其
 節義薦為中郎諫大夫

○吳章忤莽坐腰刑畏禁門人盡更名獨有先生能自
 効斂骸骸骨答恩情 式穀成人誨在師事三如一分
 當宜先生一舉扶名教此義須令學子知

종고을의노은이개가을
 흐로이방현이되여가기
 그외조차가글자비호타
 니을이어즈리의회와악
 은이아주지물건화아은
 조수의간사물이갈을은
 트리타아니후고드리악은
 의신테문간슈후여가저
 수다가선근히도적안나
 수노들은다운아나고도적
 수막은헤려내여브러머
 은면되을모만라호데도적
 석이대의니그리고나니이

辛招斂殯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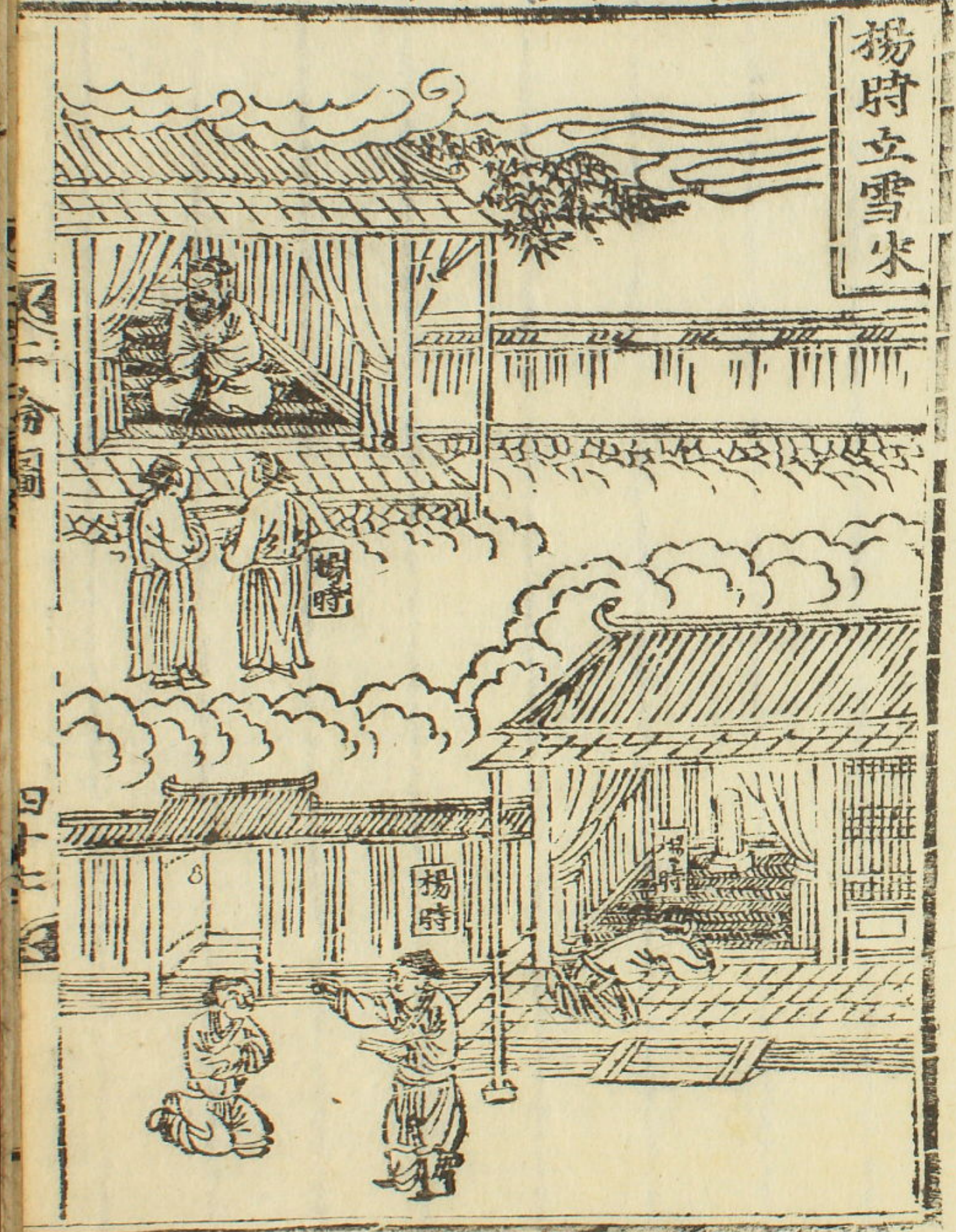
桓榮少學長安習歐陽尚書事博士九江朱普負靈無資
 常容傭以自給精力不倦十五年不窺家園會普奉榮奉
 喪九江負土成墳因留教授徒眾數百人
 生三事一理斯存世之隆儒孰扣昏桓氏也能知此
 義奔喪負土報前恩 食貧部下習書經十五年來力
 致精尊寵竟蒙措古力何曾一字忘先生

三國魏辛招年十餘歲詣同縣樂隱受學後隱為車騎將軍何苗長史招隨卒業值京師亂苗隱見害招與隱門生史路等觸鋒刃共殞斂隱屍送喪歸還道遇寇鈇路等皆悉散走賊欲取棺取釘招垂淚請免賊義之乃釋而去由此著名

三國魏辛招年十餘歲詣同縣樂隱受學後隱為車騎將軍何苗長史招隨卒業值京師亂苗隱見害招與隱門生史路等觸鋒刃共殞斂隱屍送喪歸還道遇寇鈇路等皆悉散走賊欲取棺取釘招垂淚請免賊義之乃釋而去由此著名

當年從學在髻雅遇亂師亡最可悲冒刃斂屍還蒼里蒼皇終不負吾師 道逢頑寇亂干戈史路先奔獨奈何一寸丹誠終感賊所棺凶禍不能加

揚時立雪



命圖

四三

元定對榻宋
 此元定之아리박이 글을 만
 히보아 텡 시어 록과 쇼시 경
 제와 텡 시 텡 몽으로 원 텡이
 을 마루 처 날오 뒤이 공주 밍
 주의 바루 줄 밍이라 원 텡이
 2 作 들기 피아 라 임의 주라
 노 글히 여차 리 물리 오 텡하
 앙야 처 산외 오라 주려셔 노
 텡 밍고 글러 라 주려 의 일
 호 밍고 텡고 가 스 텡 삼오 나 주
 회 비 호 기 술 무 러 보 고 텡 장
 놀 나 날오 뒤이 노 배 늘근 버
 디 오 리 주 의 뉴 에 무 디 못 앙
 리 로 다 앙 호 상 의 안 자 글
 기 글 텡 의 노 앙 여 밍 텡 의 디
 느 리 라 스 방 의 처 와 밍 호 텡
 텡 을 만 주 시 문 뒤 원 텡 의 디
 차 텡 텡 텡 텡 라



元定對榻宋

揚時得明道之傳而歸及聞其卒設位哭寢門而以書計
 告同學者後與游酢同見伊川伊川瞑目而坐二子侍立
 既覺謂曰賢輩尚在此乎今既晚且休矣及出門外雪深
 一尺矣

學道歸來道已東山顏梁毀恨難窮寢門慟擗知天
 喪為計諸生共哭從 吾師之身亦吾師却與游君共
 事之偶值先生瞑目坐雪深一跡不知瘦

蔡元定父發博覽羣書以程氏語錄邵氏經世張氏正蒙授元定曰此孔孟正脉也元定深通其義既長辨析益精登西山絕頂忍飢食糞讀書聞七熹名徃師之熹叩其學大驚曰此吾老友也不當在窮子列遂與對榻講論諸經奧義每至夜分四方來學者必俾先從元定質正焉

詩蔡公問學自家庭虛已尋師要道成勤苦西山通正脉紫陽初見亦應驚力學精忠素性存青年探討見真源晦庵叩學難為方師道何慚一世尊

二倫行實圖終

庚戌四月日祗受有 旨書狀內凡事有本我朝之禮樂文物有勝於麗朝而黨論之弊患得患失其禍至於去年逆變極矣大詔雖已頒布此亦末也三綱行實所載實為百行之本

世祖朝作此書

宣廟立承後首先 命布此書者可見務本之聖意今人不知親上死長之義惟梓行不緊文集而此書則印本絕少故人罕見之必須多印廣布使鄉曲之人曉然皆知在上者導以忠

義之意然後可以知所本矣三綱行實二倫
行實各一件下送卿其刻板流布事有旨
臣朴文秀敬奉有旨內辭意二倫行實則
即為刻出至於三綱行實則安東有新板與
賜送件長廣無異運來營門與二倫行實同為
印出庚戌六月日觀察使臣朴文秀敬奉
聖旨流布各邑

庚戌六月
山嶺營開刊

